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1996. 10.

최진욱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요 약

북한의 정치체제는 조선노동당을 근간으로 하는 당·국가체제의 전형으로서 당권장악이 곧 권력장악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장기간에 걸친 당권장악과정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를 내세우며 공식승계를 지연시킴으로써 많은 궁금증과 의혹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 북한권력구조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1. 북한정치체제에서 조선노동당의 위상

북한에서 당이란 근본적으로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계급을 떠나서는 당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착취계급이든 피착취계급이든 모든 계급들은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며, 이 투쟁에서 각 계급은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당이라는 조직을 필수적으로 만들게 된다.

당의 위상에 대하여 「철학사전」은 노동계급의 당을 “정치조직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로

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참모부로서 수령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수령의 의도대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회의 심장, 공산주의건설의 추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독재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당은 국가권력의 원천이 되며 국가기관은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 배경

해방 이후 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과 북한정치권력을 둘러싼 여러 파벌들의 싸움은 1950년대 후반까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계열의 승리로 끝이 났고, 1961년 개최된 제4차당대회는 김일성의 단일지배체제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일사상체계확립에 획기적 계기가 된 1967년 이후로 북한은 명실상부하게 김일성의 정치적, 이념적 지배가 확고해 졌고, 후계체제 등장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 북한이 후계자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나, 소련의 경험에 의하면 후계자문제의 제기가 결코 성급한 것도 아니었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후계자로 지명된 말렌코프를 밀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

차대회에서 스탈린을 비판하고 격하시킨 바 있다. 소련의 후계자문제를 목격한 북한의 지도부는 후계자문제가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지도부내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후계자문제가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지도부는 후계자문제가 후계자의 지명으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김일성의 확고한 권력기반을 토대로 김일성의 후견하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김일성은 오랜 기간의 권력투쟁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믿을만한 인물은 자신의 혈족뿐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소련의 후계자문제는 자신의 후계자선정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 즉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이 안정궤도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은 기반조성단계, 기반확대단계, 실질적 당권행사단계, 공식승계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노동당에 발을 들여놓은 1964년부터 1974년 초까지다. 이 단계에서 김정일은 1973

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에서 당비서로 선출되어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였으며 당권장악을 위한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제2단계는 1974년 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정치위원으로 선출되고 후계자로 지명되면서부터 1980년까지로 이 기간중 김정일은 당내기반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후계자의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제3단계는 1980년 10월 10일 제6차당대회에서 김정일이 정치국상무위원, 당비서, 중앙군사위원에 선출되어 공개적으로 2인자 위치에 오르면서부터 1990년까지다. 이 기간중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김일성과 함께 당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4단계는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현재까지로 김정일이 당권을 바탕으로 당밖에서 서서히 공식승계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특히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수령의 지위획득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추진중이다.

4. 김정일 당권장악의 특징

김정일 당권장악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집권적 관리체제의 확립이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당규약을 개정하고 당조직을 부단히 개편함으로써 모든 당사업과 조직이 자

신의 유일적 통제하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조직강화의 작업으로는 우선 1970년 개최된 제5차당대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비서국의 위상강화를 들 수 있다. 비서국 위상강화의 정치적 의도는 김정일의 당권장악에 있어서 혁명1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국보다는 당의 일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국을 이용하여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또한 제5차당대회에서는 중앙집권제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킨 당규약이 채택되었다. 즉 당규약에는 “당 단체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당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계통적 지도검열 및 하급 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는 수정된 조항이 추가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후계자로 지명된 후 중앙집권적 당조직정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위상이 강화된 비서국내에서 특히 조직지도부를 개편, 강화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조직을 확립하여 갔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당의 ‘심장부서’ 혹은 ‘기본부서’로 간주하고 조직지도부가 “당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모두가 한사람 같이 움직이는 철통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워나가야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지도체제를 튼튼히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지방조직으로 내려보내는 지도서와 지시, 그리고 지도소조의 파견까지도 반드시 김일성과 자신의 비준을 받아

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사업이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직능을 규정한 「당사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를 제외한 간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간부의 선발·임명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이동·해임, 간부 교육의 절차·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간부사업지도서」를 만들어 간부들의 인사재량권을 제한하였다. 더욱이 김정일은 간부의 최우선 자격조건을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간부인사에 대한 김정일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김정일 당권장악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김정일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측근들을 핵심세력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김일성 친인척, 빨치산출신 혹은 빨치산 2세출신 등의 출신성분과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해외유학의 교육배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자동적으로 김정일의 측근세력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의 중앙집권적 지도체제확립 과정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등과 같은 당 지도부와 기층조직에 대한 물갈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수의 기존인물들이 탈락하고 새로운 인물이 대거 부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당내에 구축하여 나갔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당의 핵심부서를 장악하게 하였으며, 비서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당 비서를 중심으로 한 핵심세력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김정일

의 친인척, 근무연고자, 혹은 승계과정에서의 공신들로서 김정일의 측근세력들임을 알 수 있다.

권력승계는 후계자로 지명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행사하였던 권력과 권위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김정일의 당권장악 역시 단순히 총비서나 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계승받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령중심적 정치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일이야 말로 바로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를 획득하는 요체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도 당권장악과정에 있어서 김일성의 직위를 승계하는 작업 못지 않게 수령의 지위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일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찌기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였고 우상화작업을 전개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카리스마 전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5. 결 론

1961년 제4차당대회를 계기로 단일지배체제를 확립한 북한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 개인숭배와 유일사상체계확립운동을 통하여 유일지도체계의 이론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작업의 일환으로 혁명적 수령관이 제시되었다.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인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령제 사회주의’가 북한사회에서 성장을 시작한 것이며, 수령의 유일지도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이 수령의 후계자를 필요로 하

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은 1960년대 후반부터 거의 30년에 걸쳐 시기별 특징을 갖고 전개되어 왔으며, 김정일 당권장악의 핵심적 특징은 중앙집권적 조직체제의 확립, 핵심세력의 구축, 수령지위획득 작업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통하여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제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인물장악에도 치중하여 과거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근무시 함께 일하며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인물과 친인척들을 현재 비서국 등 당핵심부서에 포진시킴으로써 자신의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획득을 중시하여 총비서직 승계 못지 않게 수령의 지위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북한에서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김정일 우상화작업, 혁명가계혈통, 김일성과의 동일시작업 등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임박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과 그 특징을 볼 때 김정일의 당내 권력기반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평가되며,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당·국가체제의 전형인 북한에서 당권을 바탕으로 한 권력장악 역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령 사망 후 군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관리하는 일이 김정일 시대 개막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제I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제II장 북한정치체제와 조선노동당	5
1. 사회주의체제에서 공산당의 위상	5
2. 북한정치체제에서 조선노동당의 위상	12
제III장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 배경	16
1. 권력투쟁과 단일지배체제의 확립	16
2.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후계체제의 대두	31
제IV장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38
1. 기반조성단계(1964~1974)	39
가. 유일사상체계확립과 사상사업강화	39
나. 조직 정비	44
다. 세대교체론과 3대혁명소조운동	47
2. 기반확대단계(1974~1980)	50
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강화	51
나. 대중동원운동	58
다. 후계체제에 대한 장애제거	62

3. 실질적 당권행사단계(1980~1990)	65
가. 혁명2세대의 등장과 후계체제의 성공적 진행	65
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72
4. 공식승계단계(1990~현재)	77
가. 법적·제도적 승계준비	77
나. 김일성 사망과 수령승계작업	80
제V장 김정일 당권장악의 특징	83
1. 중앙집권적 조직체제의 확립	83
2. 핵심세력 구축	90
3. 권위획득	96
제VI장 결 론	102
<부록> 김정일 약력	107
참 고 문 헌	108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국가주석직과 당총비서직이 공식인체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변칙통치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의 3년상이 지난 후에도 공식승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김정일의 승계시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군부의 역할증대 등과 맞물려 승계가능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 북한권력구조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조선노동당을 근간으로 하는 당·국가체제의 전형으로서 당권장악이 곧 권력장악을 의미하므로, 당권장악과정에 대한 연구는 북한권력구조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요체가 된다. 북한정치체제는 1950년대 후반까지 집체적 지도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나, 1961년 항일무장투쟁세력을 근간으로 하는 김일성 단일지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후계체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미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해 있던 김정일은 1973년 당 조직비서와 선전선동비서를 겸직하면서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김일성의 절대적 후원하에 당권장악에 매진하였는 바, 당조직을 부단히 개편하고 후계체제를 적극 지지하는 인물들을 핵심세력으로 육성, 당내 요직에 포진시켰으며 사상 사업을 강화시켜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이론적·현실적으로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당권장악과정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를 내세우며 공식승계를 지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은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장악은 후계자로 지명되고 국가주석이나 당총비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향유하였던 권위와 권력을 김정일이 어느 만큼 획득·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일의 당권장악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향후 김정일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김정일의 당권장악이 당총비서직 등의 취임과 함께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권위와 권력을 얼마만큼 획득하고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인식하에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일의 조직 및 인물장악과 같은 현실적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상화 작업과 김일성의 카리스마 전이 등 권위획득작업에 대한 분석도 병행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역사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선로동당력사」, 「근로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등과 같은 일차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조선노동당의 인적·물적·사상적 변천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들이다. 한편 「인민의 지도자」와 「김정일 지도자」와 같은 김정일 전기들은 김정일 이상화작업에 대한 종합적 선전자료로서, 이상화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북한지도부의 인물분석에서는 부분적이거나 귀순자의 직접증언과 수기 등에 의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북한정치체제에서 조선노동당의 위상을 사회주의체제의 공산당과 비교하여 조선노동당의 일반적 특징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조선노동당의 변화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김정일후계체제의 등장배경과 이후의 상황전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얻으려고 하였다. 제4장은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을 1964년부터 현재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특히 제4장에서는 김정일의 당권장악을 조직개편, 인물장악 및 권위획득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일 당권장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결론이다.

제 II 장 북한정치체제와 조선노동당

1. 사회주의체제에서 공산당의 위상

사회주의에 있어서 헌법상 권력구조의 조직원리는 소위 민주적 중앙집권제라는 것이다. 인민주권론에 기초를 둔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대의제·권력분립의 원리와 대립하고 있다.¹⁾ 국민주권의 원리에 있어서 주권의 주체는 추상적인 전체국민을 의미하고 이런 이유로 자유위임을 본질로 하는 대의제가 채택되고 있으나, 인민주권의 원리에 있어서는 주권의 주체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개개인의 집단, 즉 유권적 시민의 총체이므로 개개인으로서의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제를 그 이상(理想)으로 한다.²⁾

인민주권의 원리에 의하면 경험적인 국민의사와 잠재적인 국민의사가 항상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일반의사(volonté générale)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이익이 일치함으로써 사회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의사로서 이는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며 오류가 있을 수 없다.³⁾ 이런 이유로 국민의 일반의사는 대표될 수 없으며 전체국민이 헌법제정에

1) 사회주의의 인민주권론은 루소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2), p. 583.

3) 정인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 박영사, 1991), p. 270.

서부터 법률제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일치하는 인민주권의 원리에 있어서 대표는 그를 선출한 주권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기속위임을 그 본질로 한다.⁴⁾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분립이 필수적이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리에 의하여 대표기관에 권력이 집중된다. 사회주의의 통치이론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제에서 대의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속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빌려 부르조아 지배를 관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삼권분립은 의회가 국가권력을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써 의회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권자체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⁵⁾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리에 의하면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대표기관은 인민의 의지와 이익의 구체적 실현기관으로서 인민의 의지에 충실히 복종할 뿐이다. 즉 사회주의에서

4)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을 부인하는 인민주권론에 의하면 국민의 의사를 절대시하여 일반의사(volonté générale)로 표현되는 국민의 의사의 무오류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의사를 내세운 전체의 위험이 있다. 주권의 통일성, 불가분성, 불가양설을 주장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나 국민주권론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4), p. 621.

5) 小林孝輔·星野安上郎 編, 尹龍熙·柳在坤 共譯, 『각국의회정치론』 (서울: 대왕사, 1994), p. 154.

중앙의 대표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의 근원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은 대표기관에 책임을 지며,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 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위헌입법심사제도나 행정부에 의한 대표기관의 해산과 같은 규정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생각할 수 없는 제도이며, 행정부는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관에 불과할 뿐이다.⁶⁾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모든 국가기관이 대표기관에 종속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에서는 지방분권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의 통일성, 안정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한다.⁷⁾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리 이외에도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프로레타리아 권력의 제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국가 최고의 목적에 위배되며, 오히려 수단의 강화를 위하여 권력의 분립보다는 통일이 강조된다.

사회주의에서 권력의 분립이 부정되고 대표기관이 헌법상 국가최고권력기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이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당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

6) 위의 책, p. 161.

7) 그러나 사회주의의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단순한 중앙집권제와는 달리 지방이 창의성과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레닌은 주장하였다. 일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선출된다. 위의 책, p. 164.

의에서 단일정당제의 정당성과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당의 지위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국가란 역사적으로 소유계급이 비소유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이며 계급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소유의 사유화가 폐지되면 계급투쟁이 사라지고 국가도 고사(枯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의 결과로 계급투쟁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완전한 소멸과 국가의 고사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국가는 역설적으로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를 필요로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있어서 국가는 자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계급인 부르조아의 완전한 억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반동을 억압하고 계급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의 유용한 도구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론은 최초의 사회주의헌법인 1918년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헌법」에서부터 유래한다. 이 헌법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수립, 계급적 분열의 폐지, 사적소유의 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1918년 헌법은 1936년 일명 스탈린헌법이라 불리는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헌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스탈린헌법은 사회주의국가의 완결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으로서 부르조아계급의 완전한 소멸을 천명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포위」에 대한 대항으로서 사회주의조국의 강화, 즉 소련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⁸⁾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 사회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로 「자본주의의 포위」는 그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1977년에 제정된 소위 브레즈네프헌법은 소련사회를 ‘발전된 사회주의사회’(developed socialist society)로 규정하고, 후르시초프가 천명한 바 있는 전체인민의 국가를 재확인하였다. 즉 소비에트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로서의 국가는 전체인민의 국가로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농민동맹의 착취계급에 대한 투쟁, 농민의 재교육, 농업경영의 사회주의적 변혁 등이 완수되고, 부르조아계급이 소멸되어 사회가 계급적 동질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련은 전체인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인민의 국가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수정이라고 비난하였다.

사회주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또 다른 예외는 인민주주의이다. 전체인민의 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다음 단

8) 한태연, 「헌법과 정치체제」 (서울: 법문사, 1987), pp. 336~343.

계에서 출현한 데 반해서 인민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전단계에서 출현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동구에 등장한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비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공유하였으며, 대기업의 국유화와 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서 중소기업의 사영 및 자작농의 토지사용이 허용되는 등 자본주의적 요소가 잔존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라고 할 수 없는 동구의 혼재된 상태를 인민민주주의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인민의 국가나 인민민주주의는 과도기의 과도기일 뿐 사회주의의 진정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없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State and Revolution)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사회주의라고 하고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오직 하나 프로레타리아독재'라고 하였다.⁹⁾

다시 말해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자본가의 반혁명 기도는 집요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노동자 계급만의 단일정당인 공산당의 존재가 불가피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 단일계급만이 존재하므로 프로레타리아의 단일 정당만이 인정되며, 이 단일정당인 공산당은 프

9) Vladimir Lenin, *State and Revolutio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4), p. 71.

로레타리아의 계급투쟁과 독재의 도구를 의미한다.

제2차세계대전 후 출현한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복수정당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해방투쟁과정에서 노동자·농민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소부르조아들도 참가함으로써 통일전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산당이의 다른 당의 존립이 허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의 본질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이다. 즉 노동자계급은 공산당을 통해서만 계급의 주도권을 실현하며 다른 계급과 권력을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에서 복수정당의 존립이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다당제(multi-party system)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전제로 한 일당지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정당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과 투쟁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조직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기에 있어서의 정당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조직으로서 이미 타도된 적대계급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혁명을 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있어서 공산당은 국가와 정부의 주력으로서 모든 것의 지도적 핵심이 되는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공산당의 정치적 결정은 헌법이나 국가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만, 그러한 국가기관을 내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공산당의 임무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산당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의 임무를 조정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모든 국가기관에서의 직위를 독점하여 그로 하여금 당의 정책노선을 엄격하게 따르도록 한다.¹⁰⁾ 그러나 당의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와 지도가 당 기관과 국가기관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¹¹⁾

요약하면 공산당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위한 전위(前衛)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와 단일정당에 대한 당위성이 나오는 것이다.

2. 북한정치체제에서 조선노동당의 위상

북한에서 당이란 근본적으로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계급을 떠나서는 당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착취계급이든 피착취 계급이든 모든 계급들은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며, 이 투쟁에서 각 계급은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당이라는 조직을 필수

10) Boris Meissner, "Party Supremacy: Some Legal Questions,"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65), p. 33, 장명봉, "공산주의국가의 권력구조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지위: 공산당독재 이론의 체계적 전개," 「통일정책」 제3권 3호, p. 244에서 재인용.

11) 위의 글, p. 247.

적으로 만들게 된다.¹²⁾ 김일성도 일찌기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라고 단언하였다.¹³⁾

당의 위상에 대하여 「철학사전」은 노동계급의 당을 “정치조직 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 즉 북한에서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참모부로서 수령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수령의 의도대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회의 심장, 공산주의건설의 추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같이 북한의 정치체제에서도 노동당은 권력의 원천이요 중핵이며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지도적 핵심이 된다. 사회주의헌법(1972년)은 당의 지도적 위치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는 제10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제4

12)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252.

13) 김일성,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 문제에 대하여(1946.9.26),” 「김일성 저작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36.

14)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46.

조의 규정은 북한사회를 프롤레타리아독재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국가에 대한 당의 지도·감독 역할을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2년의 개정헌법 역시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독재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당은 국가권력의 원천이 되며 국가기관은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당·국가체제는 북한정권의 수립과 함께 소련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서,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일당독재체제이다. 북한사회주의헌법 제67조(1972년 헌법의 제53조)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 등과 같은 ‘정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당의 정치적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로서 북한이 일당체제국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당·국가체제는 정치와 행정의 융합성, 당장치와 국가장치의 융합성, 동일인물의 겸직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고도의 단일성 체제를 갖추고 있다.¹⁵⁾ 즉 권력구조

15) 이상민, “정치체제와 조선노동당,” 고성준 외,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서울: 대왕사, 1992), p. 101.

는 노동당 중심으로 조직되며, 노동당은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최고재판소 등 모든 국가기관 위에 위치하여 이들의 임무를 조직하며, 모든 국가기관에서의 직위를 독점하고 있는 초헌법적 기관이다.

당의 지도적 역할은 프로레타리아독재기에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 후에도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당의 역할은 계속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철학사전」에 따르면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어 사회가 조직화될수록 더욱더 커지게 된다.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당과 같은 강한 조직력을 가진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가 없이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이 옳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이 보장될 수 없다.”¹⁶⁾ 실로 조선노동당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북한정치체제의 핵심인 것이다.

16)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p. 146.

제Ⅲ장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 배경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본 장에서는 조선노동당 창립 이후 김정일이 북한정치체제에 등장한 1960년대 중반 시점까지 조선노동당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본 장은 일인지배체제의 확립과정과 노동당의 성격변화 및 유일사상체제의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일 등장시점의 노동당의 정치적 토양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북한정치체제에서 후계체제 등장의 정치적 필연성과 이후의 상황전개를 이해하는데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권력투쟁과 단일지배체제의 확립

김일성은 북한정권수립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 국가주석과 노동당의 총비서로서 권력의 일인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당내 반대파들과 공존하면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김일성은 반대파들을 숙청해가면서 개인적 권력을 공고화시켜 나갔다.

해방 직후 북한의 정치무대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하였으며 공산주의 진영은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으나,¹⁷⁾ 8월 24일 소련군이 진주한 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북한의 실질적 지배자로 등장한 소련군은 공산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에 대한 열세를 만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하였다. 예컨대 소련군은 평남 건준을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가 동등하게 16명씩 참여하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소련의 의도대로 북한의 정치적 추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소련군은 공산주의자가 북한의 지배세력으로 정착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공산진영내의 누가 지배세력이 되어야 하는가도 결정하려 하였다. 해방 후 북한의 공산주의세력은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출신들 이외에,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로 나누어져 있었으며,¹⁸⁾ 이들 타 파벌에는 김일성 보다 유능하고 영향력있는 인물이 훨씬 많이 있었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조만식은 8.15 평안남도 치안유지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이를 후이를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로 재편하여 위원장을 맡았다. 20명이 넘는 초창기 평남 건준의 위원들 중 공산주의자들은 단 2명뿐이었다. 스킨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6), p. 401.

18) 소련파는 소련에서 태어나 소련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해방전 불과 수년 동안 소련에서 거주한 김일성파는 그들이 전공을 세운 지역인 갑산의 이름을 따서 갑산파로 불리기도 하였다. 연안파와 소련파는 1945년 12월이 되어서야 입국하였다.

19) 국내파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는 박헌영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북한에서도 현준혁, 오기섭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 한편 연안파에는 김두봉, 무정, 최창익 등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

하고 김일성은 소련의 절대적 후원하에 북한의 지도자로 서서히 정치적 입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소련은 1928년 이후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점철된 한국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토착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였으며, 연안파 지도자들은 소련과 거의 접촉이 없었고 친중국적인 태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을 지지하지 않았다.²⁰⁾

해방 후 한국의 공산주의운동은 박헌영이 창립한 조선공산당(1945.9.11)이 정통성을 갖고 있었으며, 조선공산당의 본부가 있는 서울이 당중앙으로서 북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명목상의 지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미·소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에 분리된 공산주의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평양에 북조선분국이 설치된 것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1945년 10월 10일부터 나흘간 열린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구성되어 공식적으로 남북한에 별개의 당조직이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북한에서 당조직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북조선분국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당중앙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북한지역에 대한 독자적 관할권과 독자적인 중앙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²¹⁾ 북조선분국의 설치로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중심은 남

20)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pp. 405~416.

에서 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0월의 북조선분국에서는 국내파인 김용범과 오기섭이 각각 제1비서와 제2비서에 선출되었으며, 집행위원 17명 중 김일성, 김책, 안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파로 채워졌다. 김일성이 북조선분국의 설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비서에 선출되지 못한 것은 북한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김일성이 아직 확실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김일성이 해방정국의 여러 정치세력 중 한 분파인 공산당의 수장으로 머무는데 만족하지 않고 민족전체의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였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이는 남한의 이승만이 민족전체의 지도자로 추앙받기를 희망하면서 한민당을 비롯한 어느 정파에도 가담하길 거부하였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의 유보된 당권장악은 불과 2개월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파는 일대 정치적 승리를 거두며 분국의 지도권을 장악하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책임비서로 선출됨으로써 분국내에 명실상부한 일인자로 부상하였으며, 다수의 반대파를

21)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170.

22) 위의 책, pp. 171~172.

‘종파분자’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제거하였다. 훗날 김일성 자신도 제3차 당확대위원회를 계기로 “당사업이 궤도에 들어 서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²³⁾

김일성은 해방 후 3개월 동안 당원수는 4,530명 정도 였는데, 당원중 노동자계급은 30%에 불과하고 농민출신이 36%에 달하였으나, 지식분자, 상업가 등 부르조아 출신이 무려 36%를 차지하였으며 심지어 친일분자까지 상당수 당에 잔존하면서 지도적 지위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²⁴⁾ 김일성은 북조선분국이 진정한 노동계급의 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지방당조직은 대부분 국내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종파주의가 심각하여 황해도, 평북, 함남 지방당위원회에 중앙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은 당증재발급사업을 포함한 대대적인 당정비작업을 수행하여 당원과 간부를 통제하고 지방조직의 당중앙에 대한 복종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김일성파에 의해 당이 완전히 장악되도록 하였다. 몇달간의 대대적인 숙청으로 당원수가 격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병행하여 집중적인 당원증가운동을 한 결과 1946년 4월 당원수는 오히려 26,000명으로 증가하였다.

23)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전당대회에서 진술한 당중앙위원회 사업결산 보고(1948.3.28),” 「김일성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 74.

24) 김일성, “북조선 공산당 각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1945.12.17),” 「김일성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p. 16~17.

북조선분국의 당권을 장악한 김일성은 1946년 8월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북노당)을 창당하였다.²⁵⁾ 창당당시 북조선분국과 조선신민당은 각각 276,000명과 90,000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당의 합당으로 조선노동당은 366,000명의 당원을 갖게 되었다. 당권배분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위원 43명 중 공산당측이 29명, 신민당측이 14명으로 당세에 맞추어서 균형을 이룬 듯이 보였으며 공산당측내에서도 국내파, 소련파, 김일성파가 세력을 균점하였다. 정치위원회의 경우는 13명 중 연안파가 5명, 국내파가 4명, 소련파가 1명이었으며, 김일성파는 2명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었다. 특히 연안파인 김두봉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북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상의 균형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당내 우월적 지위는 분명하였다.²⁶⁾ 요약컨대 북노당의 창립은 북한을 이끌어갈 정치세력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며, 비록 부위원장이지만 김일성이

25) 조선신민당은 1946년 2월 16일 조선독립동맹으로 활동하던 연안파에 의해서 창당되었는데, 조선신민당은 비교적 온건한 정책으로 북한내의 지식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비공산주의자와 심지어 반공주의자까지도 정치적 보호를 목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연안파의 주요 지도자는 1945년 12월 초 대거 입북하였다. 스킨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p. 451.

26) 연안파의 원로인 김두봉은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였으며 정권에 도전할 위험성이 적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최고지도자에 오른 것 뿐이었다. 연안파의 실질적 지도자는 최창익이었다.

북한정치체제의 실질적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다.

한편 북노당의 창당에 맞추어 남한에서도 1946년 11월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남노당)이 창당됨으로써 남북은 독자적인 당조직을 갖게 되었다.²⁷⁾ 미군정하의 남한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남노당보다는 북한지역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북노당이 한국공산주의운동의 권위와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남북노동당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지만 1948년 8월 15일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 북한정부마저 수립되자,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남북노동당의 합당도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 남북의 전국적인 대표성을 주장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추진된 남북노동당의 합당 문제는 1949년 6월 조선노동당이 새로이 창당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5년 10월 북조선분국이 설립된지 4년만에 북한의 지배세력인 조선노동당의 골격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조선노동당의 세력분포는 중앙위원회와 정치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남북노동당이 파벌간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았으나 김일성이 실권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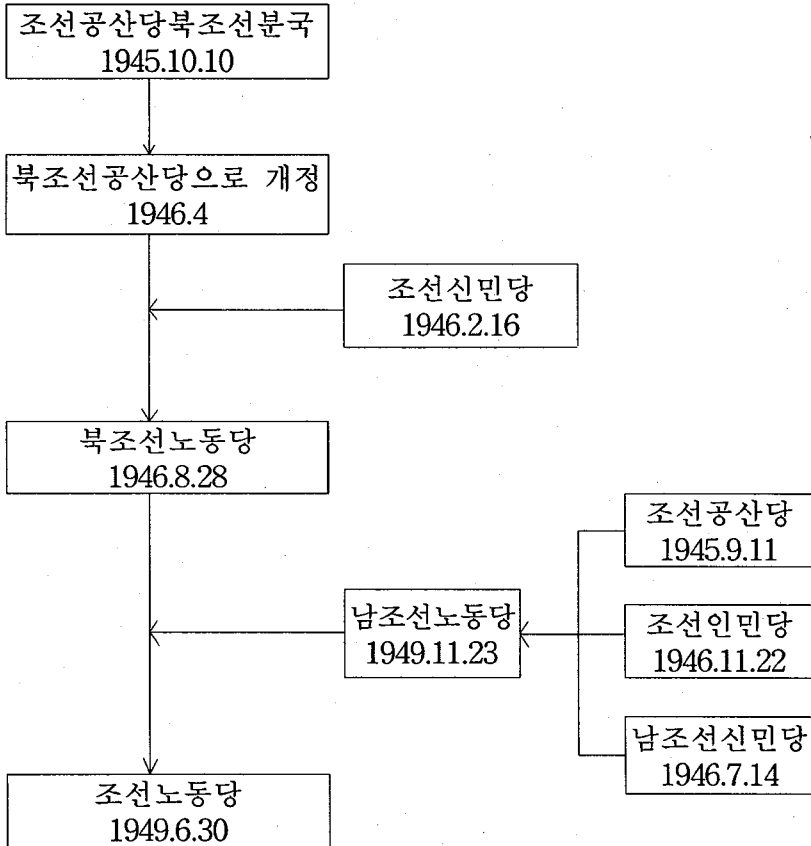
27) 남노당은 형식상으로는 좌익 3당의 합당으로 조직되었으나 그 구성원의 면면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조선공산당이 그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박갑동, 『박헌영』 (서울: 인간사, 1983), p. 173.

다. 예컨대 당의 최고권력기구인 정치위원회의 경우 9명 중 남노당계열이 4명, 연안파가 2명, 소련파가 1명이었으며, 김일성파는 2명에 불과하여 파벌간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듯이 보였으나, 김일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정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당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 것이었다.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남한내에서 이미 입지가 약화되기 시작한 남노당은 1946년 9월 미군정청의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으로 더욱 위축되었으며 이후 남노당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으로 지하로 들어갔다. 더욱이 남한내의 조직이 와해된 상태에서 남노당 간부들은 19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를 구실로 모두 월북하여 이미 북한의 정권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북노당과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1945년 10월 북조선분국창립 이래 조선노동당은 줄곧 여러 파벌로 구성된 정치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김일성계열은 당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세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1950년대 계속되는 김일성의 타 파벌에 대한 숙청으로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당내 최고권력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내파가 전쟁의 와중에서 제거되었다. 박헌영과 남노당의 핵심인물은 1953년 초 반국가, 반혁명 간첩죄로 체포되어 이승엽 등 10여명이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²⁸⁾ 이로써 남북

28) 박헌영의 재판 및 사형집행은 1955년 12월에 이루어졌다.

<표 1> 조선노동당 형성과정



노동당 합당 이후 김일성계열을 제외하고 당내 가장 큰 세력이었던 국내파가 몰락하게 되었다.

남노당계열 숙청 이후 개인숭배에 박차를 가하던 김일성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에 대

한 비판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렸으나, 김일성은 오히려 개인숭배를 과거 숙청된 반대세력의 과오로 돌리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하였다.

남노당계열 제거 이후 당내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오던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3차당대회를 계기로 확고부동한 당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3차당대회(1956.4.23~29)의 세력분포를 보면 최초로 김일성계열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일성이 선출되었음은 물론이며 최용건, 박정애, 박금철, 정일룡, 김창만 등 부위원장 5명도 전원 김일성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또한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박정애, 김일, 박금철 등 중앙위원회 서열 6위까지 김두봉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일성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연안파의 김두봉(2위)과 최창익(8위), 소련파의 박창욱(7위) 등이 여전히 중앙위원회의 상위서열에 남아있었으나 부위원장이나 조직위원에서는 탈락하였다. 요컨대 이제 파벌은 더이상 큰 의미가 없었으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단합이 그 어느 때 보다 견고한 것으로 보였다.

김일성의 단일지배체제 확립과정에서 국내파 다음의 숙청대상은 연안파와 소련파였다. 제3차당대회 이후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연안파를 중심으로 한 반김일성파는 김일성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가 몰락하고 만다. 1956년 8월 3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전각본에 의해 연안파의 윤희공은 집체적

지도원칙 위반과 개인숭배를 비난하며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윤공흠, 서휘, 이필규 등은 김일성 계열의 반격을 받아 중국으로 망명한 후 출당처분 당하였으며 최창익, 박창욱 등은 중앙위원직을 박탈당하였다. 이것이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8월 종파사건'이다. 중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윤공흠 등의 출당처분이 취소되고 최창익과 박창욱은 중앙위원에 복직하였으나, 김일성은 이를 계기로 '반종파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가하였다. 김일성은 1956년 말부터 1957년 초까지 당중교환사업을 통하여 일반당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전개하였으며,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1958년까지 김두봉, 오기섭, 박창욱, 최창익 등을 포함한 연안파와 소련파들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8월 종파사건'으로 야기된 반종파투쟁의 결과 반김일성파는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즉 김일성은 1958년의 반종파투쟁의 결과 해방 이후 혼재되어 있던 북한정치체제의 여러 파벌들에 대한 숙청을 마무리짓고 확고부동한 단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일성의 당권장악에 있어서 1956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 김일성은 1956년 이전까지는 내각에 있으면서 주로 행정사업을 관장했기 때문에 비록 책임비서나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내부사업에

소홀하였다.²⁹⁾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당내 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반김일성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김일성은 보았다. 1956년 연안파와 소련파의 당권도전을 계기로 김일성은 자신이 직접 당사업을 지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³⁰⁾ 김일성은 당의 두 핵심기구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친동생인 김영주(1959년)와 갑산파의 김도만(1958년)을 각각 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당에 대한 친정체제를 강화하였다.

김일성계열의 명실상부한 당권장악은 1961년 9월 제4차당대회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제4차당대회는 조선노동당내에 다른 파벌은 모두 사라지고 항일빨치산 단일파벌의 당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당조직에 있어서 상무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폐지되고 정치위원회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또한 85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37명이 항일빨치산 출신이었으며, 연안파와 소련파는 완전히 몰락하였다. 연안파 중에서는 김창만, 하양천, 김창덕 등이 잔존하였고 남일 등 소련파 일부가 생존하였으나, 이들은 이미 김일성에 충성을 하고 있던 인물로 더이상 과거의 계파로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김일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물론이고 부위원장 전원이 김일성계열 인물이었으며, 최용건, 김일,

29)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1967.3.14~27),” 「김일성 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136.

30) 위의 글, p. 137.

<표 2> 조선노동당의 시기별 세력분포, 1945~196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1945.10)	북조선 노동당 (1946.8)	조선노동당 2차대회 (1948.3)	남북노동 당 합당 (1949.6)	조선노동당 3차대회 (1956.4)	조선노동당 4차대회 (1961.9)
위원장	김용범 (제1비서)	김두봉	김두봉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부위원장	오기섭 (제2비서)	김일성 주영하	김일성 주영하	허가이 박헌영	최용건 박정애 박금철 정일룡 김창만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이효순
정치 위원회 (상무 위원회 집행 위원회)	김일성(김) 김 책(김) 안 길(김) 김용범(국) 박정애(국) 주영하(국) 장순명(국) 강진건(국) 오기섭(국) 최경덕(국) 김용기(국) 송봉옥(국) 이순직(국) 김교영(국) 미확인 3인	김일성(김) 김 책(김) 김두봉(연) 최창익(연) 김창만(연) 박효삼(연) 박일우(연) 김교영(국) 주영하(국) 박정애(국) 태성수(국) 오기섭(국) 허가이(소)	김일성(김) 김 책(김) 김두봉(연) 최창익(연) 박일우(연) 주영하(국) 허가이(소) 이승엽(국) 김삼룡(국) 허 현(국)	김일성(김) 김 책(김) 김두봉(연) 박일우(연) 허가이(소) 박헌영(국) 이승엽(국) 김삼룡(국) 허 현(국)	김일성(김) 최용건(김) 박정애(김) 김 일(김) 박금철(김) 김창만(김) 정일룡(김) 김광협(김) 남 일(연) 김두봉(연) 김두봉(연) 임 해(연) 최창익(연)	김일성(김) 최용건(김) 김 일(김) 박금철(김) 김창만(김) 이효순(김) 박정애(김) 김광협(김) 정일룡(김) 남 일(김) 이종옥(김)
김일성 계비율	3/17	2/13	2/7	2/9	8/11	11/11

출처: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I, II (서울: 국토통일원, 1980);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7).

* 김: 김일성계, 국: 국내파, 연: 연안파, 소: 소련파

** 인물명단은 정치위원회이나,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립시는 집행위원회의 세력분포이며, 제1, 3차 당대회시는 상무위원회의 세력분포임.

박금철, 김창만, 이효순 등 5명의 부위원장중 김창만을 제외한 4명이 항일빨치산 출신이었다.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구인 정치위원회도 김일성계열에 의하여 독점되었으며, 더욱이 절대다수의 정치위원이 빨치산 출신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조선분국 창립부터 김일성계열은 당내 다수파의 위치를 점하지 못하였으나 점차 당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세력기반을 확대하여 나갔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의 최고권력기구인 정치위원회의 세력분포를 시기별로 보면 김일성계열의 당권장악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소련의 절대적 후원을 받고 있던 김일성은 물론 초기부터 조선노동당의 중심인물이었으나 김일성계열은 줄곧 당내 소수파의 위치에 있었다. 김일성계열이 최초로 정치위원회내에 다수를 점하게 된 것은 국내파를 제거한 후인 1956년의 제3차당대회에 이르러서였다. 그리고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한 후인 1961년의 제4차당대회에서 비로소 김일성계열이 조선노동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 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과 북한정치권력을 둘러싸고 투쟁하던 파벌들은 모두 소멸되고 김일성계열의 단일지배체제가 시작된 것이었다. 실제로 제4차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1958년부터 당내의 “반당종파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표 3〉 조선노동당의 성격 변화과정

	성격	이념	당의 조직원칙	당원수
1차당대회 (1946.8)	조선근로대중의 이익 의 대표자이며 옹호자	무언급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366,000
2차당대회 (1948.3)	조선근로대중의 이익 의 대표자이며 옹호자	무언급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752,762
3차당대회 (1956.4)	조선인민의 혁명적 전 통의 계승자	마르크스- 레닌주의	집체적 지도원 칙 등 당내민 주주의 강조	1,164,945
4차당대회 (1961.9)	항일무장투쟁의 영광 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	마르크스- 레닌주의	중앙집권강조	1,311,563

출처: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I, II.

한편 빨치산계열의 권력독점은 조선노동당의 성격규정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규정하여 왔던 조선노동당은 제4차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 계승자”임을 명시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혁명전통을 당의 이념으로 규정하였다. 195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2권이 혁명전통의 대중학습 교재로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³¹⁾

또한 조선노동당 규약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아 왔고 특히 제3차당대회에서는 집체적 지도에 대한 레닌적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가 강조되었으나, 제4차당대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고 중앙집권이 강조되었다. 제4차당대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김일성의 절대권력이 확고부동함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의 사망때까지 지속된 단일 지배체제가 1960년대 초반 북한정치체제에서 깊숙히 뿌리를 내린 것이다.

2.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후계체제의 대두

1960년대 초 북한은 김일성 단일지배체제가 확립되어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 보다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으나, 외부적으로는 서서히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북한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중·소와의 관계악화였다. 1960년대 들어서 표면화되기 시작한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북한은 초기에 중국을 지지함으로써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소련의 경제원조 중단은 북한의 경제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1966년 개최된 제2차 당대표회에서 부수상 김일은 제1차 7개년계획(1961~

31)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291.

1967년)을 3년간 연장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66년 시작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시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였고, 이에 맞서 북한은 문화혁명을 ‘좌경’ 혹은 ‘교조주의’라고 거부함으로써 북·중관계가 긴장되었다.

월남전이라는 대의명분에서조차 협조할 수 없었던 중·소분쟁은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진영내의 연대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실망시켰으며, 한반도 혁명의 수행이나 스스로의 안보 자체에 대해서도 북한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남한내의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와대기습사건이나 대남유격대파견 등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고, 북베트남에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경제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³²⁾ 그러나 중·소분쟁은 베트남전쟁에서의 반미통일전선구축에 장애로 작용하여 북베트남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방해하였다.

이밖에도 쿠바 미사일위기와 중국·인도국경분쟁에서 소련이 보인 대응을 보고 북한은 소련에 의존하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한·일국교정상화(1965년)를 미국의 아시아 침략의 일환으로 파악한 북한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김일성은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일본을 한국과 결탁시켜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중심으로 아

32) 스텔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73.

시아를 침략하려 한다고 본 것이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은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사설을 통하여 소련과 중국을 각각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로 비난하면서 자기의 주체성을 지킬 것을 명백히 하였다. 196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제2차 당대표회에서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체제의 강화와 재정비가 논의되었다. 김일성은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보고에서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문제점, 한반도내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논하였다.³⁴⁾ 김일성은 혁명의 국제적 환경이 매우 복잡하며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내부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공산당 및 노동당들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당내 기획분자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고, 이는 6개월 후 제4기 15차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다.³⁵⁾

제2차대표자회 마지막날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14차전

33)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국주의 세력을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966.10.5),” 「김일성 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79.

34) 위의 글, pp. 376~469.

35) 스톱키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 105.

원회의에서는 체제강화와 재정비의 구체적 일환으로 당조직의 개편이 단행되었다. 즉 집체적 지도의 색채가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직제가 폐지되고 유일적 영도를 조직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총비서, 비서직제가 신설되었으며, 신설된 비서국은 “당의 노선과 정책, 결정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과 일상적인 당 사업을 지도”하도록 하였다.³⁶⁾ 총비서는 물론 김일성이 맡았으며, 비서로는 최용건, 김일,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석산, 허봉학, 김영주, 박용국, 김도만이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총비서로서 비서국 비서들의 보좌를 받게 됨으로써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당내 단일지도체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한편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내에 상무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하여, 당 및 국가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무위원회의 신설은 당지도의 집중력과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김일성 유일영도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조직의 활동은 이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³⁷⁾ 상무위원으로는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등이 선출되었으나 이들 중 김일성에 필적할 만한 인물은 없었으며, 상무위원회는 단지 외형상 집체적 지도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36) 「로동신문」, 1966.10.13.

37)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298.

북한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혹은 구실로) 196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온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더욱 강화하였다. 체제 재정비의 일환으로 당중앙위원회 제4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단행된 당조직개편에 이어 15차전원회의(1967.5.4~8)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문제가 토의되었다. 유일사상의 핵심적 요지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당을 무장시켜 어떤 다른 사상도 용납하지 않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루어 수령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유일적 영도밑에 혁명사업과 건설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38)

제15차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체계확립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권력핵심층내에 퍼져있는 반유일사상체계 움직임 때문이었다. 이 회의에서 일단의 노동당 간부들은 제2차대표자회 이후 가속화되어 온 유일사상체계확립을 반대하다가 대거 숙청당하게 된다. 소위 갑산파의 조직비서 박금철 대남비서 이효순(이상 상무위원), 사상비서 김도만, 국제부장 박용국, 과학교육부장 허석선, 부수상 고희(이상 갑산파), 임춘추 등은 당의

38)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략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600.

혁명전통을 비방하고 사상교양사업을 방해하였으며, 당내에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온갖 반당반혁명적사상을 퍼뜨려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숙청되었다.³⁹⁾

조국광복회출신의 이들 소위 갑산파는 1950년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연안파, 국내파, 소련파 등에 대항하여 일관되게 김일성을 지지하며 김일성파로 분류되어 온 인물들이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김일성을 따라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다 소련으로 간 유격대출신들과는 구별되었다. 갑산파는 1936년 가을 김일성이 지휘하는 항일연군 1로군 6사와 연결하여 조직된 국내 지하조직출신들이다. 갑산파숙청사건은 유일지도체계 확립과정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권력의 핵심그룹까지도 숙청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유일사상체계확립에 획기적 계기가 된 1967년 이후로 북한은 명실상부하게 김일성의 정치적, 이념적 지배가 확고해 졌고,

39) “부르조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은 당의 료선과 정책을 왜곡하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헐뜯으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당안에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온갖 반당반혁명적사상을 퍼뜨려 당과 인민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체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31.

후계체제 등장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 북한이 후계자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나, 소련의 경험에 의하면 후계자문제의 제기가 결코 성급한 것도 아니었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후계자로 지명된 말렌코프를 밀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스탈린을 비판하고 격하시킨 바 있다. 소련의 후계자문제를 목격한 북한의 지도부는 후계자문제가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⁴⁰⁾ 따라서 북한체제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지도부내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후계자문제가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지도부는 후계자문제가 후계자의 지명으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김일성의 확고한 권력기반을 토대로 김일성의 후견하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김일성은 오랜기간의 권력투쟁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믿을만한 인물은 자신의 혈족뿐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소련의 후계자문제는 자신의 후계자선정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 즉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이 안정제도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0)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1989), p. 205.

제Ⅳ장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은 기반조성단계, 기반확대단계, 실질적 당권행사단계, 공식승계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노동당에 발을 들여놓은 1964년부터 1974년 초까지다. 이 단계에서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에서 당비서로 선출되어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였으며 당권장악을 위한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제2단계는 1974년 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정치위원으로 선출되고 후계자로 지명되면서부터 1980년까지로 이 기간중 김정일은 당내기반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후계자의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제3단계는 1980년 10월 10일 제6차당대회에서 김정일이 정치국상무위원, 당비서, 중앙군사위원회에 선출되어 공개적으로 2인자 위치에 오르면서부터 1990년까지다. 이 기간중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김일성과 함께 당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4단계는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현재까지로 김정일이 당권을 바탕으로 당밖에서 서서히 공식승계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특히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수령의 지위획득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추진중이다.

1. 기반조성단계(1964~1974)

가. 유일사상체계확립과 사상사업강화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던 1964년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배속되어 지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7년 당 중앙위원회 제5기 15차전원회의에서였다. 앞(2장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회의에서는 유일사상체계확립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고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반대하던 당내 갑산파가 대거 숙청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정일은 당비서국 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중앙기관담당 책임지도원으로서 숙청대상자의 죄행을 조사하여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등 숙청을 주도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유일사상체계확립을 명분으로 후속숙청작업을 주도하며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⁴¹⁾

제4기 15차전원회의 이후 김정일은 당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에서 선전선동부 문학예술지도과장으로 옮기면서부터 사상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하였다.⁴²⁾ 갑산파가 숙청된지 한달 후 김정

41)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310.

42) 이때 부장은 현재 당비서인 김국태(김책의 장남)이며, 부부장은 현 당비서인 김기남이었다. 김국태는 1967년 종파사건시 전임 선전선동부장 김도만이 숙청된 후 선전선동부장을 맡아 선전부문에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주도하였다.

일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의 담화에서 주동분자들을 제거하였다고 하여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³⁾ 특히 김정일은 수정주의자의 병폐가 문화예술부문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문을 철저히 장악하고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하였다.⁴⁴⁾ 실제로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전원회의 이후 김정일의 담화와 연설은 문화예술부문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에 의하면 김정일은 1967년 5월 30일의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시작으로 1973년 3월까지 총42건의 연설 중 35건(83.3%)을 문화예술부문에 할당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제4기 15차전원회의 이후 전국의 「당력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연구실」로 재편하고 「김일성동지혁명연구실도록」을 편찬하는 등 사상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위상을 높여갔다.

실제로 1968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에 「로동신문」은 김

43)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1967.6.15),”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0.

44) 김정일은 학습지인 「향토사」, 예술영화인 「일편단심」, 노래인 「나비쌍쌍, 제비쌍쌍」 등 유일사상체계를 훼손한 작품들의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문화예술부문에서 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행위를 비난하였다. 위의 글, pp. 232~236.

일성의 부모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김정일위상의 변화를 암시하였으며, 이후 김일성 가계의 항일혁명투쟁이 소개되는 전기 등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혁명의 혈통을 이어 받았음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김정일승계구도의 초석이 되었으며 이후 혁명혈통에 대한 중요성이 수시로 강조되었다. 스즈키 마사유키는 김일성의 후계문제가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려된 것은 제4기 15차전원회의 후인 이 때쯤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⁵⁾

김정일이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박차를 가하던 1968년 말 북한 권력핵심부에서는 또 한번의 대대적인 숙청이 전개되었다. 숙청대상자는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출신인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총책 허봉학,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등 군 수뇌부로서 이들은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반대하다가 숙청당하였다. 이들은 당정책의 불이행과 군벌관료주의로 비난받고 반당반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⁴⁶⁾ 이들의 숙청은 제4기 15차전원회의에서 갑산파가 숙청당한지 불과 일년반만에 다시 대규모 숙청이 있었다는 점과 이들이 권력의 최고 핵심에 포진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사단, 연대에 정치위원을 두게 되었고, 당

45) 스즈키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 106.

46)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69.3.3),” 『김일성 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72.

비서국이 군간부와 정치간부들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1970년 5차당대회에서는 아예 군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군부에 대한 숙청이 마무리된 후 1969년 초 김정일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진급하면서 위상을 높였으며, 1956년 이래 형성되기 시작한 수령제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제4기 15차전원회의 이후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을 김일성 개인숭배와 연관시키며, 수령이 당을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라는 구호가 1968년 들어서면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자”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즉 김정일은 1960년대 후반 유일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일지도체계확립을 추진하면서,⁴⁷⁾ 유일지도체계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혁명적 수령관을 제시하였다.⁴⁸⁾

1969년 4월 김일성 생일 57회를 맞이하여 열린 전국 사회과학자 토론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의 수령은 “전체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통일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며 혁명과 건설의 항도적 역량인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 뇌수”라고 정의되면서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이론화 작

47) 권력이 일인에 집중되어 있는 차원의 단일지도체계와 달리 유일지도체계란 힘뿐만 아니라 체제합리화의 이데올로기와 사회문화적 정서까지도 스스로 재생산한다.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52.

48) 혁명적 수령관과 함께 유일지도체계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80년대에 등장한다.

업이 시작되었다.49) 즉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와 입장으로서, 혁명적 수령관에 따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 력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50) 따라서 수령의 영도가 있어야만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전진되며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령을 절대화하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무조건 받들고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수령·당·대중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은 북한체제를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효율적 체제로 만드는 긍정적 기능을 하였으나,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의 절대성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대중을 비주체적 피동체로 전락시켰으며 수령의 무오류성은 당내 비판세력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북한을 반성없는 사회로 만드는 등 북한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저하시키는 폐해를 초래하였다.51) 더욱이 당을 “혁명의 참모부”로, 수령을 “혁명의 최고지도자”로 규정함으로써52) 순수하게 최고 지도력이어야 할

49) 「로동신문」, 1969.4.19.

50)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pp. 602~603.

51)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pp. 56~59.

5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3.3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당을 사실상 수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⁵³⁾

혁명적 수령관이 정착되어 가면서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논리적으로 수령이 존재하는 한 수령의 후계자는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⁵⁴⁾ 또한 후계자문제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의 임표 모반사건은 후계자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71년 3월 모택동의 공식적인 후계자 임표가 반모비밀쿠데타계획을 실천에 옮기다가 실패하고 비행기로 도주하다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⁵⁵⁾ 임표 사건은 김일성의 오랜 권력투쟁의 경험과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등의 기억과 어우러져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후계자로서의 첫번째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나. 조직 정비

1960년대 후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당지도부의 대폭적인 개편에 따라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되는 분위기속에서 북한은 후계체제에 대비한 조직정비와 세대교체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다. 1970년 11월 개최된 제5차 당대회에서는 김정

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

53)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p. 59.

54)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327.

55) 1969년 4월 중국공산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주석 임표는 모택동의 후계자로 선정되었고 이는 당현에까지 명문화되었다.

일시대를 여는 새로운 권력개편이 이루어졌다.

<표 4> 2차대표자회와 5차당대회 of 조선노동당
인물변동상황, 1966~1970

기구	정치위원회		비서국	
당대회	제2차 대표자회	제5차 당대회	제2차 대표자회	제5차 당대회
	김일성, 최용건 김 일, 박금철 이호순, 김광협 김익선, 김창봉 박성철, 최 현 이영호	김일성, 최용건 김 일, 박성철 최 현,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서 철, 김종린 한익수	최용건, 김 일 박금철, 이호순 김광협, 석 산 허봉학, 김영주 박용국, 김도만	최용건, 김 일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김종린 한익수, 현무광 양형섭
교체 비율	6/11		7/10	

출처: 「로동신문」, 1966.10.13; 「로동신문」, 1970.11.14.

기구면에서 볼 때, 1966년 제2차대표자회에서 조직되었으나 유명무실했던 정치위원회 상무회의가 폐지되고 정치위원회와 비서국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었다. 1966년 선출된 11명의 정치위원 중 김일성, 최용건, 김 일, 박성철, 최현을 제외한 6명이 경질되었으며, 비서국의 경우 10명의 비서 중 최용건, 김 일, 김영주를 제외한 7명이 교체되는 대폭적인 개편이 단행되었다. 특히 비서국에 오진우, 김종린, 양형섭 등 새

로운 인물들의 등장은 유일사상체계확립 및 김정일의 부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⁶⁾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정위원 117명 중 85명이 새로이 정위원에 선출된 인물들로서 역대 어느 때 보다 높은 72.2%의 교체율을 보였다.⁵⁷⁾

당중앙기구에서의 대대적인 교체인사와 함께 5차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다. 비서국은 제2차대표자회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과 일상적인 당 사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으나, 5차당대회에서 “간부문제, 대내문제 및 그 밖의 당면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하도록 위상이 강화되었다. 비서국의 위상강화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여전히 혁명1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국보다는 비서국에 당내 일상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비서국을 통하여 김정일의 당권장악을 위한 초석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⁵⁸⁾

또한 5차당대회 이후 2년만인 1972년 10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5차전원회의에서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처음으로 당중교환사업을 실시하여 당의 기층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였다. 당원중 교환은 단순히 기술실무적인 문

56) 위의 책, p. 321.

57) Nam-sik Kim,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I, No. 1 (Spring/Summer 1982), p. 140.

58)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320.

제가 아니라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고 당의 이색적 요소를 척결하기 위함이었다.⁵⁹⁾ 당증교환사업은 1960년대 후반 당핵심부에 대한 숙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당원이 유일사상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당에서 축출된 것으로 보인다. 당증교환사업은 일시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몇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는데, 1972년 8월 29일 2백만 명이던 당원수가⁶⁰⁾ 1978년 1월 28일 제5기 15차전원회의에서도 여전히 2백만명으로 발표되었다.⁶¹⁾ 1972년부터 1978년까지 6년 동안 상당수의 새로운 당원이 입당하였을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중 신입당원수 만큼의 당원은 출당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1980년 10월 6차당대회까지 당원수가 3백만으로 증가한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다. 세대교체론과 3대혁명소조운동

북한은 조직정비와 함께 1970년대 초부터 세대교체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김일성은 1971년 후계자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여 세대교체를 언급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를 암시하였다. 김일성은 1971년 6월 24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6차대회에서

59)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2.10.23~26),”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501~503.

60) 『로동신문』, 1972.8.29.

61) 『로동신문』, 1978.1.19.

한 연설에서 혁명위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⁶²⁾ 김일성이 말한 혁명위업의 완수란 “조국이 통일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한 다음에도 공산주의를 완전히 건설”하는 것이었다.

세대교체론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추진력을 얻으면서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각급 당조직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1973년 2월 김일성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한 직후 당중앙위원회에서 직접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당조직과 함께 3대혁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공장, 기업소에 나가는 3대혁명소조는 대체로 20~30명이 한 조가 되었으나 규모가 큰 공장, 기업의 경우는 50명이 한 조가 되기도 하였다.⁶³⁾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의 파견목적이 간부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는 것이며 투쟁대상이 간부들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임을 강조하였다.⁶⁴⁾

62)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1971.6.24),” 「김일성 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204.

63)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1975.3.3),”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07.

64) 위의 글, p. 106.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혁명수행에 있어서 구세대
 대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세대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간부들을 무시하거나 혁명대열에서 탈
 락시키는 등 간부들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
 백히 하였다.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에게 “오랜 간부들을 떼어
 버릴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어 그들이 지난 기간 일을 잘한
 것 처럼 앞으로도 일을 잘하여 꽃을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하
 며 간부들의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타협없이 투쟁하되 그들을
 존경하고 받들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즉 3대혁명소조운동은
 간부들의 지위에 대한 위협이나 변동없이 젊은세대들의 정치
 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세대교체의 토대로 삼으려는 김일성
 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1973년 4월 당 문학예술부장으로 진급한데 이어,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에서 조직 및 사
 상담당비서로 선출됨으로써 당의 핵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
 의 조직과 사상부문을 한 사람이 전담한 것은 노동당 역사상
 전례없는 파격적인 조치로서 김정일은 당권장악을 위한 중요
 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초반 당조직비
 서이던 김영주가 후계자로 인식되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며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한지 불과 9년만의 일로서 그의
 나이 31세였다.⁶⁵⁾

65) 한때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실권을 잡고 있던 조직부장 김영주는 부
 수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곧 정치무대에서 사라진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중 김정일은 조직사업과 사상사업(특히 문화예술부문)을 지휘하면서 당권장악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⁶⁶⁾ 이 기간중 김정일의 공식적인 지위는 당비서까지 진출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2. 기반확대단계(1974~1980)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에 있어서 1964년부터 1973년까지가 기반조성단계라면 1974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은 기반확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중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위를 획득하고 후계자로서 그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비밀리에 추진된 승계 작업의 결과 김정일은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로동신문」은 그를 ‘당중앙’으로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추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김정일은 당중앙으로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8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전

66)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를 보면 김정일의 당내 실권장악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북한자료는 “8차전원회의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 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주체 혁명의 위대한 계승자로 당과 혁명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⁶⁷⁾ 그러나 최고지도자에 의한 지명만으로 후계체제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김정일은 당조직의 재편성, 대중운동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과 권위확립 등을 도모하였다.⁶⁸⁾

특히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된 후 당권장악을 위하여 당의 조직과 사상부문의 장악에 관심을 기울인다.⁶⁹⁾ 이를 위하여 김정일은 무엇보다 당의 ‘기본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 양대조직을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였다.

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강화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후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의 지도를 뒷받침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으며,⁷⁰⁾ 이를

67) 「로동신문」, 1991.12.24.

68) 스즈키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p. 108~109.

6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를 보면 1974년부터 특히 사상사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연설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 스즈키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p. 108~109.

위하여 김정일은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문제를 내세웠다.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 즉 김정일 지도체제수립의 정당성을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두었다. 김정일은 “우리 당에 있어서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은 당안에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⁷¹⁾

또한 김정일은 자신의 의사를 김일성의 의사와 동일시하여 당사업과 활동을 자신의 통제하에 집중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당규율의 확립을 도모하였으며,⁷²⁾ 나아가 유일적 지도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후계체제의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를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체제”라고 정의하였다. 김정일이 후계자지명 직후 유일적 지도체제를 내세운 것은 김일성의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으며,

71)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73.

72) “당중앙의 의사는 곧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곧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레외없이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위의 글, p. 173.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은 곧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다.⁷³⁾ 김일성 역시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지원하는데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 김일성은 당조직 일꾼 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서한에서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는 것은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면서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다.⁷⁴⁾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확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를 강화시켰다. 김정일은 우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중앙당으로부터 지방조직으로 내려가는 모든 지시와 문서가 김정일의 승인하에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당조직을 위에서 아래까지 철저히 장악하려 하였다.⁷⁵⁾ 사전승인의 실무적인 절차는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였다. 즉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로 하여금 “각 부서가 집행위원회와 비서처회의에 제기하는 문건들, 아래당조직에 내려보내는 지시문들을 미리 검토하

73) 스키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 109.

74)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5), p. 95.

75) “당중앙위원회에서 아래당조직들에 내려보내는 지도서와 지시는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과 나의 비준을 받은 다음에 내려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수령님과 나의 승인이 없이는 어떠한 문건도 아래에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60~61.

고 합의를 주며 지도소조를 조직하고 파견”하도록 하였다.⁷⁶⁾

또한 김정일은 당정책의 해설, 지도위주의 정치사업, 사람과 의 사업 등을 취급하는 당사업은 그 성격상 성과가 당장 들어 나지 않고 사업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간부들의 월권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다고 보고, 김일성과 자신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⁷⁷⁾ 예컨대,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로 하여금 각급 간부의 직무를 규범화하고 상세한 업무 절차를 규정한 「당사업지도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간부들의 월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간부들의 “관료주의, 행정대행주의, 세도를 막고, 사람이 바뀌어도 부서의 직능이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김일성과 자신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간부들의 자의적 권한확대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였으나, 직능의 세부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상부가 직능 이외의 지시를 하면 하부에서 접수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⁷⁸⁾

조직지도부의 기본과제는 지방당조직에 대한 지도사업, 중앙기관 당조직에 대한 지도사업과 간부사업을 강화하는 것이었

76)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p. 221.

77)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김정일: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139.

78) 위의 책, p. 141.

다.⁷⁹⁾ 특히 김정일은 당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장악·지도하는 것이 조직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였다.⁸⁰⁾ 또한 김정일은 정무원 위원회, 부들의 사업이 잘되려면 당조직들의 사업이 개선·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⁸¹⁾ 간부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당간부들의 무능과 나태를 통렬히 비난하면서,⁸²⁾ 간부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정일은 무엇보다 먼저 간부들을 옳게 선발·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간부 선발·배치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임을 강조하였다.⁸³⁾ 구체적으로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이동·해임, 간부교육의 절차·방법 등을

79)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p. 73.

80)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p. 196.

81) 김정일,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74.6.10),”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39.

82) “지금 전반적으로 도당책임일군들의 수준이 낮은 형편입니다. … 동무들이 가지고 있는 당사업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다 지난날 낡은 썩대밭에서 당사업을 하면서 얻은 것들입니다. … 도당일군들 가운데는 글을 변변히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도당책임일군들이 보고서나 결정서 같은 것을 도당 선전선동부일군들과 도일보사 기자들을 동원하여 씌우고 있는데 이것은 도당책임일군들이 아직도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5.6.13),”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57.

83) 위의 글, p. 349.

상세히 규정한 「간부사업지도서」를 새로이 만들어 간부사업의 제도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간부사업지도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김일성과 김정일 이외에는 다른 간부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재량권이 제한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재편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통제 체제를 확립하고 간부들의 월권을 견제하면서 인사권을 독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의 조직과 사상담당비서를 겸임하고 있는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중요성을 다같이 강조하면서 두 부서가 상호 업무영역에 얽매이지 말고 ‘배합작전’을 잘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⁸⁴⁾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관계는 의사와 약사의 관계와 같이, “조직부가 당생활을 늘 장악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면 “이에 기초하여 선전선동부가 결함을 고치는데 알맞는 사상교양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⁵⁾ 즉 김정일은 조직지도부가 확보한 자료를 선전선동부에 넘겨주어야 선전선동부가 현실적인 사상사업을 펼칠 수 있다며, 두 조직의 긴밀한 배합작전이 잘 되어야 당이 수령님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84)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pp. 64~65.

85)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p. 220.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두 조직의 확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당권장악의 교두보로 활용하였다.

김정일은 선전선동부를 통한 사상사업의 장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⁸⁶⁾ 후계자지명 직후인 1974년 2월 19일 김정일은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언하였다. 동 연설에서 김정일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것이 당 사상사업의 출발점이어야 하며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⁸⁷⁾

또한 김정일은 1974년 4월 14일 ‘온사회에 김일성주의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제시하였다.⁸⁸⁾ 이 중 가장 핵심인 10항은 ‘김일성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규정

86)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를 보면 1974년부터 특히 사상사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연설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7) “온사회에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출발점으로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사상사업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 철두철미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은 시종일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중심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김정일,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2~3.

88)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91~124.

함으로써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임을 되풀이 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속에서 해석하려는 ‘편향’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강조하였다.⁸⁹⁾ 즉 김일성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시대적 제약성을 뛰어 넘는 완성된 공산주의이론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의 불명확성과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으로 김정일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일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김정일은 주체사상해석의 최고권위자가 될 수 있었다.

북한측의 평가대로 1970년대 중반에는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전당·전국·전군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체제가 더욱 확고히 서게 되었으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대중동원운동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권력기반을 확대시키는 중요

89) 김일성,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1976.10.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73.

한 기제로서 대중동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우선 지금까지 김일성이 지도하던 3대혁명소조운동을 자신이 직접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지도체계나 당조직과의 공동작업이 만족스럽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고 파악하고, 1974년 2월 과거 공업과 농업부문 소조를 별도로 지도하던 것을 당중앙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도록 지도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1975년 3월에는 중앙과 도, 시, 군에 있는 3대혁명소조 종합실을 3대혁명소조 지휘부로 개편하였다.⁹⁰⁾

3대혁명소조운동은 김정일이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혁명소조들은 주로 혁명사상이 강한 당의 젊은 인테리들로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당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김정일의 지지기반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사상, 문화, 기술분야에서 낙후된 부분을 일소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실질적 목적은 각급 생산단위, 행정기관, 문화기관, 학교 등에 당정책관철과 당간부들의 낡은 사상개조라는 명분하에 혁명소조를 파견함으로써 김정일의 영향력과 이미지가 전체사회에 확산될 수 있었다.⁹¹⁾

김정일의 대중동원은 경제부문에서도 시도되었다. 1971년부

90) 탁진 외, 「김정일 지도자 제2부」 (동경: 동방사, 1984), p. 176.

91)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p. 294.

터 시작된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4차년도인 1974년 공업부문에
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김정일은 “연간계획을 넘쳐 완수하
여 사회주의 대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목표로 하는 비상조
치로서 소위 「70일전투」를 발기하였다.⁹²⁾ 1974년 10월 21일부
터 연말까지 계속된 「70일전투」에서 김정일은 전당, 전국, 전
국민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속도전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였다.⁹³⁾ 중앙
에는 당과 정무원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중앙지휘부가 설치되
어 총참모부의 역할을 하였고, 각 도와 시, 군, 중요 생산단위
들에는 전권을 행사할 강력한 지도그룹이 파견되었으며, 현지
에서 활동하고 있는 3대혁명소조들이 이에 합세하였다. 이 기
간중 2천여개의 단위에 1만1천여명의 간부가 파견되었고, 온갖
방송매체가 동원되어 현지보도, 특집기사, 방송야회, 축하방송
등을 하였으며, 12개의 지방예술단과 48개의 지방예술단이 현
지에 파견되었다.⁹⁴⁾ 「70일전투」의 결과 이전에 비해 공업생산
은 1.7배, 석탄은 1.8배, 철도화물수송은 1.3배, 수출은 2배 증
가하였으며, 1974년 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117.2% 증가된 것
으로 평가되었다.⁹⁵⁾

92) 탁진 외, 「김정일 지도자 제2부」, p. 131.

93)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1974.10.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243.

94) 탁진 외, 「김정일 지도자」, pp. 132~133.

95) 위의 책, p. 139.

이밖에도 김정일은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1975년 11월 김일성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본질적 내용은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국방 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최대한 박차를 가하는 것이었다.⁹⁶⁾ 김정일은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은 운동의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천리마작업반 운동」을 계승하고 있으나,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목표하에 대중적 사상개조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킨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이 1979년 10월 발기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역시 주민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운동”으로서,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정일은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은 모두 당적 사업임을 강조함으로써, 당의 철저한 지도체계하에 대중운동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96)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1976.1.1),”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19.

다. 후계체제에 대한 장애제거

후계자 지명 후 김정일은 조직 및 선전선동분야를 장악하면서 후계체제를 확립하여 갔으나, 김정일의 기반확대작업이 순탄하게 추진된 것만은 아니다.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의 최대 걸림돌은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 일파였다. 김성애는 1969년 2월 여성동맹 위원장에 임명된 후 김성애여사로 호칭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특히 1971년 1월 김일성이 “김성애의 얘기는 내 얘기와 같다”고 말함으로써 2인자와 같은 권한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1974년 6월 평양시당 전원회의에서 김성애와 측근들이 대거 몰락하게 된다. 김성애의 동생 김성갑(해군사령부 정치위원)과 김성호(황해북도 당 비서)가 숙청되었으며, 김성애 자신은 여맹위원장 자리는 간신히 유지하였으나, 이후 월권행위가 엄격히 규제되면서 활동범위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후 김성애와 그 형제, 자식들은 ‘결가지’라 하여 철저히 견제되어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져 갔다.⁹⁷⁾

97) 결가지론은 선전선동 부부장 김기남이 고안한 것으로, 김기남은 1973년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과정에서 여론 형성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기남은 이후 <근로자>와 <로동신문>으로 자리를 옮겨 김정일체제확립에 맞도록 신문을 바꾸는 이른바 ‘신문혁명’을 주도하였다. 1986년 이후 김기남은 당의 선전선동담당 비서로서 “김일성은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이다”를 만들기도 하였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김정일」, p. 172.

또한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지도하며 급속히 당내기반을 확대하여 가자, 기존의 당지도부에서도 저항이 생겨났다. 1976년 6월 개최된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부주석 김동규는 김정일의 간부정책, 계급정책, 후계체제확립과정 등을 집중 비난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자 지명 후 초기에는 노동계급,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과 같은 핵심군중들을 잘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복잡군중까지도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대열에 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⁹⁸⁾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계급정책을 강화하였다. 김동규는 이 과정에서 월남자 가족이나 남한출신들이 소외 당하였음을 지적하고 당의 단결을 위해서 계급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⁹⁾

또한 김동규는 빨치산 2세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와 ‘간부청년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간부들의 소외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김동규는 김정일이 「간부사업지도서」를 만들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당의 규율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노간부들을 노쇠로 몰아 제거하고 청년간부를 대거 기용한 것 등을 비난하였다. 김동규는 계급정책과 간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김정일의 후계자 부각이 너무 성급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숙청당하고 말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당과 군의 고위직

98)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5.6.13),” p. 352.

99)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김정일」, p. 115.

인사가 대거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¹⁰⁰⁾

김동규 사건은 김정일의 당권장악이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고 배타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김정일의 권력독점에 대한 반발은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함경도 지방이 특히 심하였지만 전국적으로 동조세력이 퍼져있어서 도당, 군당까지 '집단교양소'를 설치해야 할 정도였다.¹⁰¹⁾

김동규 사건은 김동규와 추종세력의 숙청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김정일의 당권장악 방법과 속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김일성은 김동규가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비판하는 방식에 대하여 불만은 있었지만 간부사업의 문제점은 인정하였다.¹⁰²⁾ 김정일은 이후 '간부배합'정책을 중시해 노년·중년·청년의 배합, 빨치산출신·유자녀출신·비유자녀출신의 배합을 기본틀로 삼게 되었다. 특히 노년층의 불만을 감안해 당의 말단세포비서는 대부분 노년층이 맡도록 하였다.¹⁰³⁾

김정일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1978년에 이르면 당중앙위원회 부장, 당비서, 당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한 독자적 추

100) 김동규 사건과 반드시 연관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김동규 사건을 전후하여 숙청된 인사로는 당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김장식, 비서 김중린, 인민군 제1부총참모장 김철만, 조직부장 박수동 정치위원 한익수 등이 있다.

101)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김정일」, p. 120.

102) 스톱키 지음, 「김정일과 수령체사회주의」, p. 134.

103)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김정일」, p. 142.

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치국원 정도만 김일성과 상의하였다.¹⁰⁴⁾ 1970년대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에 있어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첨병역할을 하면서, 이들 부서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증대되었다. 특히 조직지도부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하여 간부사업, 검열사업 등을 총괄지도하게 되는 등 조직의 확대와 함께 당의 핵심부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또한 김정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당내 유일적 지도체제확립을 발판으로 권력기반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군과 정무원, 그리고 대남사업분야까지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3. 실질적 당권행사단계(1980~1990)

1970년대 말에 이미 당내 인사권을 폭넓게 행사하던 김정일은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당대회에 이르러서는 정치국 정위원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른다.

가. 혁명2세대의 등장과 후계체제의 성공적 진행

김정일은 1970년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해서 광범

104) 위의 책, p. 145.

위하게 당권을 장악하였지만, 공개적으로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1980년 개최된 제6차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즉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미 공식적인 후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김정일이 제6차당대회를 계기로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2인자로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며 실질적인 당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제6차당대회는 조선노동당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였으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평가하고,¹⁰⁵⁾ 앞으로의 중요한 과업은 대를 이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일 후계구도가 확고부동한 당의 진로임을 공개적으로 명백히 하였다.¹⁰⁶⁾ 이와 같이 김정일 후계구도가 공개적으로 선언됨에

105) “당 중앙위원회의 령도 밑에 전 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 같은 규율이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당안에는 모든 당 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모든 당원들이 제정된 질서와 행동 규범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있습니다. …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 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혁명적 규율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 되었습니다.”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IV」 (서울: 국토통일원, 1980), pp. 11~18.

106) “오늘 당사업에서 내세울 중요한 과업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간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

따라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뒤따랐다.

김정일 승계작업과 관련하여 제6차당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정치국으로 대체되었으며 1970년 제5차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부활되었다는 것이다. 1966년 설치되었으나 김일성의 유일체계하에서 유명무실한 존재였던 상무위원회를 부활시킨 것은 김정일을 상무위원에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무위원으로는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욱, 김정일 등 5명이 선출되었으나 병약한 김일이나 기술관료출신인 이종욱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며 오진우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선봉장이었다. 따라서 상무위원회 설치는 실질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¹⁰⁷⁾

또한 상무위원회, 비서국과 군사위원회에 모두 선출된 사람은 김일성을 제외하고는 김정일 뿐으로, 단순한 후계자의 위치를 넘어서 실질적 통치자로서의 김정일의 위상이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차당대회에서는 김정일의 위상제고와 함께 김정일시대를 열어 갈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는 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며 주체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 요구입니다.” 위의 글, p. 416.

107)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336. 김일은 1984년 사망하고 이종욱은 1988년 부주석이 되면서 제외되었다. 김일성(1994년)과 오진우(1995년)가 사망한 이후 김정일은 현재 유일한 상무위원이다.

<표 5> 5차당대회와 6차당대회의 조선노동당 지도부
변동상황, 1970~1980

기구	정 치 국		비 서 국	
	제5차 당대회	제6차 당대회	제5차 당대회	제6차 당대회
당 대 회	김일성, 김 일 박성철, 최 현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서 철 김중린, 한익수	김일성, 김 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 박성철 최 현, 임춘추 서 철, 오백룡 김중린, 김영남 전문섭, 김 환 연형묵, 오극렬 계웅태, 강성산 백학림,	김일성, 최용건 김 일,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김중린, 한익수 현무광, 양형섭	김일성, 김정일 김중린, 김영남 김 환, 연형묵 윤기복, 홍시학 황장엽, 박수동
2세대 비율	1/10	7/19	2/10	9/10

출처: 「로동신문」, 1970.11.14; 「로동신문」, 1980.10.15.

* 밑줄친 인물은 혁명2세대로 분류된 인물임.

당지도부에 포진하였다. 10년 전인 제5차당대회에서 10명의 정치국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항일무장투쟁세대였던데 반해서, 6차당대회에서는 19명의 정치국원 중 7명이 혁명2세대였다. 혁명2세대에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이종옥과 같은 인물은 혁명1세대로서 정치적 비중 보다는 실무형 지도자로서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비서국의 경우 세대교체의 폭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서 제5차당대회에서 10명의 비서 중 9명이 혁명1세

대였으나 6차당대회에서는 총비서 김일성을 제외한 9명 전원이 혁명2세대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6차당대회에서는 혁명2세대의 부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혁명1세대의 퇴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비서국의 경우는 전원이 혁명2세대가 들어섰지만, 정치국의 경우 여전히 혁명1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혁명2세대가 보충되는 방식으로 인선이 이루어 졌다. 혁명1세대의 희생없이 혁명2세대가 등장하려다 보니 자연히 정치국원의 수가 증가하여 정치국은 역대 최다인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대규모의 정치국은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기적 현상이었다.

이 시기 지도부 개편의 한 가지 특징은 김일성 친인척이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친인척을 배제하는 인사원칙이 있었으나, 후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김정일은 친인척을 가장 믿을 만한 세력으로 인식하면서 친인척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6차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이나 비서국 비서로 선출된 박성철, 김중린, 강성산, 황장엽 이외에도 198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15차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과 비서로 선출된 허담(1991년 사망) 등이 대표적인 친인척이다. 현재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진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도 1985년 7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당기관에서 일하면 가족은 당기관

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¹⁰⁸⁾ 후계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규제도 더이상 유효하지 않았다.¹⁰⁹⁾

김정일이 공개적인 후계자로 전면에 나서면서 「로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들은 1960년대 말 이후 북한사회의 중요한 사업들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찬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1981년 6월부터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호칭 대신에 공개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세대에 두 사람의 지도자를 함께 받들게 된 조선 인민의 무한한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김정일에 대한 위상강화가 김일성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1982년 김정일의 생일이 정식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1986년에는 김일성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이틀을 공휴일로 하였다. 1982년부터 김정일을 찬양하는 출판물이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김정일의 저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의 전기 「인민의 지도자」(1982)와 「김정일 지도자」(1984)는 모두 이 시기에 출간되었다. 아울러 김정일의 출생과 관련하여 혁명사적지가 조성되고 김정일 저작에 대한 대중학습이 전개되었다. 1984년부터 김정일의 백두산 밀영 출생설이 본격적으로 확산

108) 최고인민회의의장 양형섭의 처 김신숙(1986년 사망)이 근로단체출판사 사장에서 민속박물관 관장으로 전출되었으며,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 허담의 부인 김정숙이 조선직업총동맹 부위원장에서 출판사 주필로 이동한 바 있다.

109)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김정일」, p. 153.

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고향집)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1988년 11월 15일 백두산 밀영을 내려다 보는 봉우리를 정일봉이라 이름 붙이고, 정일봉이라는 글자를 새겨 제막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들어서 김정일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광범위해졌으며, 무엇보다 활동의 격이 김일성의 수준에 버금가게 격상되었다. 김정일은 최고통치권자나 할 수 있는 외국의 국가원수를 접견하거나 김일성만이 행하였던 현지실무지도를 1981년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정일의 실무지도에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나 정무원 총리 이종욱 혹은 강성산 등이 수행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실감케 하였다. 김일성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1980년대 중반 북한정치체제에서는 ‘김정일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1986년 5월 31일 마침내 김일성은 김일성고급당 학교 창립 40주년 기념연설에서 김정일의 후계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¹¹⁰⁾ 북한정치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통치시대’를 거쳐 김일성이 ‘반은퇴’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¹¹¹⁾

110)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태백 편집부 편, 「주체사상연구」(서울: 태백, 1989), pp. 161~163.

111) 김학준, 「북한50년사」(서울: 동아출판사, 1995), pp. 326~376.

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이를 권력확대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여 왔던 김정일은 1980년대 공개적인 후계자에 오르면서 1982년 3월 주체사상의 이론적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내놓았다.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주체사상의 창시로부터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그리고 주체사상의 역사적의의가 체계정연하게 서술되었으며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와 내용이 새롭게 심화발전되었다.”¹¹²⁾

이어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15),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1987.10.10),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1990.10.25)를 내놓음으로써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¹³⁾ 특히 김정일은 1970년대 유일지도체계확립의 이론적 바탕이 된 혁명적 수령관에서 파생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1980년대 제시하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이 1959년 ‘정치적 생명’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데서부터 유래되었으나, 당시에는 특별히 이론적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원들의 당에 대한

112)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 p. 539.

113) 위의 책, p. 544.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김일성은 당원이 당생활을 하는 것이 정치적 생명이라고 하면서 당의 결정에 불충실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였다.¹¹⁴⁾

1966년 이후 유일사상체계확립이 요구되면서 ‘정치적 생명’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¹¹⁵⁾ 우선 정치적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구별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당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정치적 생명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정치적 생명은 김일성이 주는 것이며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용어는 김일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한데서 시작되었다.¹¹⁶⁾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

114) “당원에게 있어서 당 생활은 정치적 생명입니다. ... 당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당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자(1959.9.4),” 「김일성 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81.

115) 스톱키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 159.

116)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 인간적으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보존하기 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 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2.9.17),”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96.

령이 준 것이며 수령에 의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런 생명을 준 ‘아버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된다고 주장되었다. 또한 수령과 인민은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과 인민사이에는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사상으로 고동치는 가장 공고한 통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¹⁷⁾

사회정치적 생명은 1970년대 초 김정일 후계체제가 부상하면서 권력의 승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보다 정교화되었다. 즉 “사람들의 생애에는 한계가 있지만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와 혁명을 위하여 바쳐진 고귀한 업적과 혁명정신,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인민들의 생활과 함께 영원히 빛을 낸다”고 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¹¹⁸⁾

이와 같이 1970년대 초부터 계속된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김정일은 1986년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유기체론을 제시하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육체적 생명은 친부모가 주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주는 것이며 당은 그 모태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 대중을 혈연적 관계로 규정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17) “혁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근로자』, 제8호 (1973), p. 9.

118) 위의 글, p. 5.

당연히 생명의 제공자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공산주의 도덕의 최고표현이라고 본다.¹¹⁹⁾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수령, 당, 대중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으로서 이 집단의 최고뇌수이며,¹²⁰⁾ 당은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지만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되는 것이다.¹²¹⁾

197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온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1986년 김정일이 체계화하고 강조한 것은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중요

11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1987.10.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10.

120)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 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p. 160.

121) 위의 글, p. 160.

한 의미가 있다.¹²²⁾ 1980년대 중반은 소련과 중국에서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시기로서 김정일은 개혁이론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혁명은 현실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혁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임이 강조되었다. 김정일은 소련이나 중국의 개혁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¹²³⁾ 이미 1950~60년대에 중·소분쟁의 틈새에서 중·소의 간섭 및 압력하에서 중·소에 동조하는 세력의 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은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었으며, 1980년대 중·소의 개혁바람은 후계체제 형성기에 있는 김정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김정일은 수령외의 간부에 대한 맹종을 경계하고 일치단결된 충성심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일은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122) 스희지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 170.

123) “큰나라나 발전된 나라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러한 나라들의 경험이라고 하여 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56.

당,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²⁴⁾ 김정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속에서 수령·당·대중의 혈연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변함 없는 의리와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한 것이다.

4. 공식승계단계(1990~현재)

가. 법적·제도적 승계준비

1980년대 이미 당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체제를 움직여 왔던 김정일은 1990년대 들어서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2인자의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김정일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데 이어,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 1992년 4월 20일에는 원수로 취임함으로써 김일성 유고를 대비한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확립하였다. 특히 1992년 개정헌법은 국방위원장직을 국가주석직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승계하기 전에 국방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실제로 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124) 위의 글, p. 166.

1991년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그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¹²⁵⁾

1990년대 들면서 김정일은 국가기관에서 직위를 하나씩 추가하여 갔지만, 당·국가 관계에 있어서 김정일은 여전히 당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연쇄적인 붕괴를 목격하면서 당면한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당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2년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의 담화에서 행정부의 독선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면서 정부에 대한 당의 확고한 지도적 지위를 강조하였다.¹²⁶⁾ 김정일은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가 없으면 사회주의정권은 부르쵸아 정권으로 변질되게 되며 당이 정권에 대한 령도를 포기하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전위부대로서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고 하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당의 지도적 지위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사상분야에서 당의 역할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실패원인을 사상의 변질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자들의 파산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체제위기를 극복

125) 전용석,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 『근로자』, 제10호 (1991), p. 31.

126) “국가정권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높인다는 구실밑에 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경향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p. 457.

하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하에 사상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피 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하였다.¹²⁷⁾

김정일은 개정헌법을 통해서 권력승계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정비도 병행하였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규정한 바 있는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 이를 법적으로 추인하였다. 즉 개정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헌법에서는 김정일이 주창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도 추가되었다.

127)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로동신문」, 1994.11.4; “사상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최고의 정치조직이며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사상사업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사상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사상분야에 그 어떤 잡사상도 침습하지 못하게 하고 사상사업의 혁명적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할 수 있으며 온 사회에 하나의 사상, 사회주의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할 수 있다.”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로동신문」, 1995.6.21.

나. 김일성 사망과 수령승계작업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애도와 이에 대한 자신의 배려를 이유로 공식적인 승계를 지연시키며 ‘유훈통치’를 하고 있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처럼 김정일은 새로운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기 보다는 철저하 김일성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유훈통치기간중 우상화작업과 김일성의 카리스마 전이 등을 통해 김일성이 누렸던 권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령중심제 정치체제인 북한에서 당 총비서나 국가주석에 취임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이 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이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일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천재성을 부각시키는 등 우상화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김일성의 경사필체를 이어받아 서예의 극치이며 마르크스·엔겔스·레닌의 저서를 3년만에 독파하였다고 선전하고 있고,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하였다.

또한 김정일이 수령의 후계자가 되어야만 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3대위인’논리

를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은 과거와는 달리 김일성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 보다는 “김정일을 낳아 주체혁명의 위대한 계승을 마련한 것”으로 ‘불멸의 업적’을 남긴 것이 되었다.¹²⁸⁾

김정일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면모도 과시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즉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전 내세운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광폭정치란 “기본군중 뿐만 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는 정치”라고 정의하면서,¹²⁹⁾ 인민을 계급출신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폭넓은 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⁰⁾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지도자의 자질로서 능력 보다는 덕성을 강조하며 인덕정치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정치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¹³¹⁾ 김정일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각계각층의

128) “김정숙 사망 45주년 추모사에서 한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의 보고,” 「중앙방송」, 1994.9.22.

129) 「로동신문」, 1994.1.28.

130) 북한은 전체주민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포섭계층으로 분류하고 의식주 배급 등 사회적 혜택을 차별화하는 계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라고 말하면서, 인덕정치는 곧 광폭정치라고 하였다.¹³²⁾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통해 김정일은 계급정책을 완화하고 주민을 포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³⁾

131)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32) “사회주의정치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 우리당의 인덕정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사랑과 충성에 기초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가장 공고한 단결이며 이러한 일심단결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33) 김성철 외, 「김정일 승계체제 공고화 동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14.

제 V 장 김정일 당권장악의 특징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되어 왔으나, 각 단계를 관통하는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일이 당권장악과정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중앙집권적 조직체제의 확립, 측근인물의 당지도부 포진과 권위 획득 노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중앙집권적 조직체제의 확립

김정일 당권장악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집권적 관리체제의 확립이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당규약을 개정하고 당조직을 부단히 개편함으로써 모든 당사업과 조직이 자신의 유일적 통제하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조직강화의 작업으로는 우선 1970년 개최된 제5차당대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비서국의 위상강화를 들 수 있다. 1966년 개최된 제2차대표자회에서 신설된 비서국은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과 일상적인 당사업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김정일 후계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제5차당대회에서 비서국은 “간부문제, 대내문제 및 그밖의 당면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할 수 있게 되

었다. 비서국 위상강화의 정치적 의도는 김정일의 당권장악에 있어서 혁명1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국보다는 당의 일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국을 이용하여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또한 제5차 당대회에서는 중앙집권제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킨 당규약이 채택되었다. 즉 당규약에는 “당 단체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당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계통적 지도검열 및 하급 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는 수정된 조항이 추가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후계자로 지명된 후 중앙집권적 당조직정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라는 이름하에 김정일 지도체제의 공고화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은 “당사업과 당활동에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제외없이 당중앙의 유일적 결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복종하는 강철 같은 중앙집권적 규률은 전당의 사업과 활동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으로, 확고한 규범으로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¹³⁴⁾ 즉

134)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 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73.

김정일이 말하는 유일적 지도체제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를 의미한다.

김정일은 위상이 강화된 비서국내에서 특히 조직지도부를 개편, 강화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조직을 확립하여 갔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당의 '심장부서' 혹은 '기본부서'로 간주하고 조직지도부가 "당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모두가 한사람 같이 움직이는 철통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워나가야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지도체제를 튼튼히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³⁵⁾ 김정일은 "아래당조직들의 실태와 부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다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야"한다고 강조하였다.¹³⁶⁾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지방조직으로 내려보내는 지도서와 지시, 그리고 지도소조의 파견까지도 반드시 김일성과 자신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사업이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직능을 규정한 「당사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를 제외한 간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간부의 선발·임명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이동·해임, 간부교육의 절차·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간부사업지도서」를 만들어 간부들의 인

135) 위의 글, p. 174.

136)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60.

사재량권을 제한하였다. 더욱이 김정일은 간부의 최우선 자격 조건을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간부인사에 대한 김정일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전당에 유일적 지도체제를 튼튼히 세워 전당이 당중앙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10대원칙재토의사업」을 추진하였다.¹³⁷⁾ 조직지도부는 「10대원칙재토의사업」을 통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상동향과 준비정도, 사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이는 수많은 당원들이 사상비판을 당한 후 출당 철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0대원칙재토의사업」은 김정일 지도체제 확립과정에 불충실한 당간부와 당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¹³⁸⁾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라고 규정하고, “수요강연회, 토요학습, 경영학학습, 금요로동, 2일 및 주 당생활총화, 매일 2시간 자체학습을 정규화, 습성화하며 모든 당조직생활에 무조건 참가하는 혁명적인 기풍을” 세우는 일에 조직지도부가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¹³⁹⁾ 즉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통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장악지도함으로써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당조직을

137) 위의 글, p. 74.

138) 전현준, 「김정일 리더쉽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47.

139)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p. 194.

철저히 통제할 수 있었다.

일련의 조직강화 조치의 결과 조직지도부는 당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조직지도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조직지도부 출신들이 당의 핵심간부로 중용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핵심당료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고급당학교, 해외유학 등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중앙당이나 도당의 지도원으로 간부수업을 시작하는 데, 특히 조직지도부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3년을 넘기지 않고 타부서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지도부는 ‘간부양성부’로 불리기도 한다.¹⁴⁰⁾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후 추진된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와 유일적 결론에 따르는 당사업과 활동의 기풍확립작업은 당내에 중앙집권적 규율을 정착시켜갔다. 1980년 6차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가 부활되고 김정일이 상무위원에 선출된 것은 당내 중앙집권적 원칙이 당핵심부서에도 적용되었음을 의미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김정일은 지난 10년간 유일적 지도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에 3대혁명소조와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김정일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경험은 3대혁명소조가 사상투쟁에 앞장서야만 사상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

140) 계웅태, 전병호, 서윤석, 최태복 등이 조직지도부 지도원을 거친 대표적인 인물이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김정일」, p. 155.

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¹⁴¹⁾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향후 활동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조하였다. 즉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이 당중앙의 영도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중요한 문제들은 당중앙에 제때에 집중되고 당중앙의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⁴²⁾

또한 김정일은 정무원과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당사업에 근본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하였다. 즉 유일사상체계, 당생활체계, 당생활지도체계 등이 정립되었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이 높아졌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¹⁴³⁾ 더욱이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나, 모든 당일군들이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김정일은 중앙기관 당조직들은 무엇보다 당생활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적 지도에

141) 김정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1984.3.10),”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 124.

142) 위의 글, p. 127.

143) 김정일,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1984.7.15),”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 152.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규율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즉 김정일은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가 속한 당조직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당중앙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⁴⁴⁾ 특히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의 기층조직인 세포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당세포들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후계자로 지명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에 자신감을 갖게 된 김정일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스스로 계급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즉 김정일은 복잡한 군중 가운데서도 당에 충실하고 능력이 있으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핵심군중이나 군출신뿐만 아니라 재일귀국자들과의 사업도 잘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⁵⁾ 이는 김정일이 중앙집권적 조직체제가 정착된데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노동당내의 조직은 완전히 김정일의 유일적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4) 위의 글, p. 161.

145) 김정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p. 111.

2. 핵심세력 구축

김정일 당권장악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김정일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측근들을 핵심세력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김일성 친인척, 빨치산출신 혹은 빨치산2세출신 등의 출신성분과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해외유학의 교육배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자동적으로 김정일의 측근세력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⁴⁶⁾

당의 중앙집권적 지도체제확립 과정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등과 같은 당 지도부와 기층조직에 대한 물갈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수의 기존인물들이 탈락하고 새로운 인물이 대거 부상하였다. 1970년 개최된 제5차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117명 중 85명인 72.2%가 새로운 인물이었으며, 정치위원회의 경우 11명 중 6명(54.5%), 비서국의 경우 11명 중 8명(72.7%)이 새로운 인물이었다. 1980년 개최된 제6차당대회에서는 10년전인 5차당대회에서 선출된 117명의 당중앙위원 중 55명이 탈락되어 47%의 탈락율을 보였다. 한편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144명 중 83명(57.6%)이 새

146) 북한권력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48~80을 참조.

로운 인물이었다. 한편 정치국의 경우 19명 중 12명(63.2%), 비서국의 경우 9명 중 8명(88.9%)이 새로운 인물로 핵심부서 일수록 교체의 폭이 컸다. 특히 6차당대회에서는 혁명2세대의 진출이 두드러져 정치국의 경우 19명 중 6명이 혁명2세대였으며 비서국은 9명 전원이 혁명2세대로서 김정일의 측근세력이 대거 등장하였음을 의미하였다. 당지도부에 대한 물갈이와 함께 당증재발급사업을 통하여 당기층조직에 대한 개편도 단행되었다. 1972년 10월 시작된 당증교환사업의 결과 1978년까지 6년 동안 당원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은 당지도부에 대한 물갈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당내에 구축하여 나갔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당의 핵심부서를 장악하게 하였으며, 비서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당비서를 중심으로 한 핵심세력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김정일의 친인척, 근무연고자, 혹은 승계과정에서의 공신들로서 김정일의 측근세력됨을 알 수 있다.

우선 친인척으로는 당비서 김종린, 김용순, 황장엽과 검열부장 김경희,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장성택 등이 있으며, 정치국원 박성철, 김영주도 김정일의 친인척이다. 특히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은 능력과 충성심이 뛰어난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 황장엽은 김정일의 대학시절 선생으로 김정일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에 공헌한 바가 크다.

친인척 못지 않게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룹은 한때 김정일과 함께 근무하면서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당비서인 김기남, 김국태, 전병호는 조직지도부 혹은 선전선동부에서 김정일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에 헌신한 일등공신들이다. 김정일이 1968년 선전선동부 과장으로 근무할 때, 부부장이 김기남이고 부장이 김국태였다. 김기남은 하급자인 김정일과 밀착하여 1970년대 중반 소위 ‘결가지’론을 내세우며 김성애 일파를 제거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라는 구호도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¹⁴⁷⁾ 김책의 장남인 김국태는 당선전선동부장 시절 김성애 제거에 압장했으며, 당역사연구실을 김일성역사연구실로 개편하고 김정일초상화를 김일성초상화와 동열에 놓도록 하는 등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에 헌신한 인물이다. 전병호는 김정일이 조직비서로 있을 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근무하며 김정일을 대리해 사실상 조직지도부를 관리해 온 핵심 측근이다.

또한 1973년부터 김정일 밑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치국원 서윤석과 당비서 한성룡, 최태복 등도 김정일의 핵심측근들이다. 서윤석은 「유일사상체제확립 10대원칙」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으며, 최태복은 교육부문에서 후계체제확립에 기여하였다.

147) 이항구,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 (서울: 신태양사, 1995), p. 95.

이밖에도 비서관은 아니지만 당농업부장 문성술과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윤승관도 김정일의 핵심측근이다. 문성술은 1963년 김정일이 대학졸업논문인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역할에 대하여」 작업시 자료수집차 평안남도 강서군을 방문했을 때 군당위원장으로 김정일과 인연을 맺은 후 1985년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오르는 등 김정일의 측근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윤승관은 김정일이 선전선동부 과장으로 있을 때 지도원으로서 일하며 김정일의 신임을 샀다. 그는 김정일이 조직 및 선전선동 비서가 된 후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발탁되어 김정일 후계체제확립에 헌신한 인물이다. 문성술과 윤승관은 각각 조직과 선전분야의 전문가로서 비서 못지 않은 실세들이다.¹⁴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은 친인척이나 과거 개인적 인연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핵심세력으로 육성¹⁴⁹⁾ 당의 요직에 포진시킴으로써 당권장악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핵심측근들을 특히 당권장악의 교두보인 비서국에 포진시켰으며, 이들은 대부분 당권장악을 위한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출신들로서 비서국을 중심으로 김정일 당권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148) 위의 책, p. 319.

149) 한성룡과 전병호는 만경대혁명학원 입교전 김일성의 집에서 김정일과 함께 기거한 적도 있다.

<표 6> 비서국 비서 변동추이, 1970~1993

1970.11	1980.10	1988.12	1990.5	1992.12	1993.12
최용건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 일	김중린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박성철	황장엽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김영주	김영남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오진우	김 환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김동규	연형묵	김중린	김중린	김중린	김중린
김중린	윤기복	서관희	서관희	서관희	서관희
한익수	홍시학	황장엽	황장엽	황장엽	황장엽
현무광	박수동	허 담	김용순	김기남	김기남
양형섭		박남기	윤기복	김국태	김국태
		허정숙	박남기	김용순	김용순
				윤기복	
				박남기	

출처: 「로동신문」, 1970.11.14; 「로동신문」, 1980.10.15; 북한연구
 구소 편, 「북한총람 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p. 159.

김정일은 1980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비서국을 자신의 핵심측근들로 채우기 시작하여 현재 김정일을 제외한 10명의 비서들은 모두 김정일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가 개막되기 전부터 당비서를 역임한 김중린도 철직 후 김정일에 의해 복권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김정일 사람이 되었다. 1980년 김정일이 공식적 후계자가 될 당시 황장엽과 김중린이 비서가 된 것을 시작으로, 1988년까지 계응

태,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서관희가 합류하였으며, 1990년에 김용순이 비서로 선출되었다. 1992년에 김기남과 김국태가 마지막으로 비서로 선출됨으로써 현재의 비서국 진용이 갖추어졌다.

또한 핵심측근이 아닌 기타 당간부들도 대부분 김정일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이며, 김일성 시대의 사람들도 대부분 한 차례 이상씩 철직 이후 김정일에 의해 복권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철직기간중 김정일에 충성을 다짐하며 김정일체제 확립에 헌신하고 있다. 즉 박성철, 김영주, 김중린, 이종욱 등과 같은 철직경험자들은 김일성 시대의 인물들이지만 사상개조과정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 김정일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¹⁵⁰⁾

김정일의 핵심측근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들이 중년층이나 청년층이 아닌 노년층이라는 점이다. 현재 당비서나 정치국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고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60대 이하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을 볼 때, 당고위층은 원로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위층 중에서도 80대에 들어선 혁명1세대 보다는 60대 혹은 70대의 혁명 2세대가 김정일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핵심측근들의 노령화는 70년대부터 당의 중견간부로서 김정일체제 확립에 헌신한 인물들이 계속 핵심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빨치산세대가 김일성의 핵심측근으로 계속 남

15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김정일」, p. 148.

아 있었던 것과 유사하며, 김정일 시대도 이들 공신들에 의한 통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76년 김동규 사건 이후 북한에서는 노년·중년·청년 배합정책이 인사의 원칙으로 지켜졌으나, 당의 핵심세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은 “당사업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꾼들이 노쇠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김정일이 말한 노쇠연령은 40대나 50대로서 고위간부의 연령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¹⁵¹⁾ 1970년대 중반은 혁명1세대가 이미 60대에 접어들고 있던 시기였다.

3. 권위획득

권력승계는 후계자로 지명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행사하였던 권력과 권위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¹⁵²⁾ 김정일의 당권장악 역시 단순히 총비서나 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계승받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령중심적 정치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일이야

151)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p. 65.

152) 양승합, “북한의 권력승계정치와 체제 및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III): 북한체제 및 정책변화 전망 분야』 (서울: 통일원, 1993), p. 163.

말로 바로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를 획득하는 요체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도 당권장악과정에 있어서 김일성의 직위를 승계하는 작업못지 않게 수령의 지위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일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찌기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였고 우상화작업을 전개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카리스마 전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을 살펴보면 김정일은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1967년 유일사상체계확립에 깊숙히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사상사업에 일찌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전원회의에서 갑산파가 숙청된 이후 ‘사상여독’을 청산한다는 명분하에 문화예술부문에서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주도하였으며 1960년 후반에는 혁명적 수령관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된 직후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언하고 수령의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공산주의사회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³⁾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지도사상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이론’이라고 강조하

153) 김정일,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제에 대하여(1974.2.1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

였다. 즉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는 100년 전, 50년 전 과학적 공산주의이론의 창시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나, 현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해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¹⁵⁴⁾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완벽성과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없는 내용에 관한 한 자신이 해석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김정일의 독점적 해석권은 이후 체제이념에 대한 수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김정일은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한데 이어서,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1991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2년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4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정당성과 희망을 주장하였다.

김정일의 후계체제확립과정에서 후계자자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출생관련 신화가 창조되고 효성과 천재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우선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김정일의 출생을 항일혁명의 전통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154)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여전히 중요한 혁명이며, 그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혁명실천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1968년 2월 16일 「로동신문」은 김일성가계의 혁명투쟁을 소개함으로써 김정일이 혁명혈통을 이어 받았음을 암시하였으며, 이후 김일성 가계의 항일혁명투쟁을 소개하는 전기 등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전기에 의하면 김정일은 “항일혁명투쟁을 벌이시며 구국성전을 이끄시던 전설적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항일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과 여성의 몸으로 손에 총창을 쥐시고 조국광복의 성전에 나서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아드님”이다.¹⁵⁵⁾ 즉 단순히 수령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항일투쟁의 영장 김일성과 여성영웅 김정숙의 아들로서 혁명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당위성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3대 위인’논리에서 찾기도 한다.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은 과거와는 달리 김일성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 보다는 “김정일을 낳아 주체혁명의 위대한 계승을 마련한 것”으로 ‘불멸의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¹⁵⁶⁾

이와 같이 김정일은 출생부터 혁명가계 출신인 것으로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장소 역시 혁명전통에 가득찬 것으로 선전되었다. 다시 김정일전기에 의하면 김정일이 어릴때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을때, 김정숙은 “네고향

155) 탁진 외, 「김정일 지도자 제1부」, p. 5.

156) “김정숙 사망 45주년 추모사에서 한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의 보고.” 「중앙방송」, 1994.9.22.

이야 백두산이지 어디겠니, 너의 고향은 조선에서 제일높은 백두산이란다. 백두산은 천지가 있고 나무도 많고 또 아버님께서 왜놈들을 때려눕힌 곳이란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⁷⁾ 김정일의 출생장소를 백두산의 항일유격대 밀영이라고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의 출생시점과 장소는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강조되었다. 또한 김정일은 조선사람들이 시조 단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간부의 최우선 자격조건으로 하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효성에 대한 선전은 수령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김정일이 어릴때 저택정문에서 나무총을 들고 서있으면서, “나도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에요”라고 말하였다며 어릴때부터 효성이 극진하였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¹⁵⁸⁾

북한은 1980년대 김정일의 출생에 대한 상징조작을 강화하였다. 우선 김정일의 생일을 1982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한데 이어, 1986년에는 이틀을 공휴일로 하였다. 1987년 김정일이 출생하였다는 백두산 밀영(고향집)이 일반에 공개되고, 1988년 백두산 밀영을 내려다 보는 봉우리를 「정일봉」이라 이름을 붙

157) 탁진 외, 「김정일 지도자 제1부」, p. 4;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인민의 지도자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5.

158)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인민의 지도자 1」, p. 27.

이고, 「정일봉」을 혁명사적지로 지정하였으며 「김정일화」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이 김정일의 출생을 온 사회에 알리기 위해 “백두산에 김일성장군 계승인 탄생” 등의 구호를 새겼다는 소나무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기도 하였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김일성 유훈통치를 내세우며 공식승계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김일성의 권위에 최대한 의존하는 통치를 하면서 김일성이 누렸던 카리스마를 상속받으려고 하고 있다. 즉 김정일의 천재성을 부각시키는 등 이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능한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 등의 언론매체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같이 서있는 사진을 연일 게재함으로써 무의식중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체성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VI장 결 론

1961년 제4차당대회를 계기로 단일지배체제를 확립한 북한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 개인숭배와 유일사상체계확립운동을 통하여 유일지도체계의 이론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작업의 일환으로 혁명적 수령관이 제시되었다.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인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령제 사회주의'가 북한사회에서 성장을 시작한 것이며, 수령의 유일지도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이 수령의 후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¹⁵⁹⁾

본 연구는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을 1964년부터 현재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조직재편, 인물변천, 사상사업강화 등을 중심으로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김정일 당권장악의 제1단계인 1964년부터 당 조직비서와 선전선동비서로 선출된 1973년까지의 기간중 김정일은 조직사업과 사상사업(특히 문화예술부문)을 지휘하면서 당권장악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 통하여 세대교체분위기를 확산시키며 후계체제확립을 적극 후원하였다. 이 기간중 김정일은 당권장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9)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327.

제2단계는 김정일이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고 당내에서 후계자로 지명된 1974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부터 1980년까지로 이 기간중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교두보로 하여 당내기반을 결정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은 특히 중앙당으로부터 지방당조직까지 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 및 간부사업 등을 철저히 장악하여 김일성과 자신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후계자지명 직후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주창하면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없는 내용에 관한 김정일 자신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데올로기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기간중 김정일은 대중동원운동을 통한 권력기반의 확대도 추진하였다. 우선 김정일은 그동안 김일성에 의해서 지도되었던 3대혁명소조운동을 자신이 직접 지도하기 시작하였으며, 독자적으로 편성·운영되던 3대혁명소조운동체계를 당주도로 개편함으로써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김정일의 영향력과 이미지를 전체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⁶⁰⁾ 이밖에도 김정일은 「70일전투」,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숨은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등을 발기하고 지도하였다.

당권장악의 2단계에서 김정일은 당권장악에 장애물이 되는

160)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p. 294.

김성에 일파를 ‘결가지’로 낙인찍어 철저히 배척하면서 당내 조직, 인사, 사상 등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급속한 상승은 당내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이 기간중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 당권장악과정의 제3단계는 김정일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1980년 제6차당대회부터 1990년까지로 이 기간중 김정일은 그동안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당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며 김일성은 김정일과의 ‘공동통치’ 기간을 거쳐 ‘반은퇴’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¹⁶¹⁾

제6차당대회에서는 세대교체바람이 북한정치체제에 거세게 몰아쳐 혁명2세대가 대거 당지도부에 포진하였다. 10년 전인 5차당대회에서 10명의 정치국 정위원 중 한 명만이 혁명2세대였으나 6차당대회에서는 19명 중 7명이 혁명2세대였다. 한편 비서국의 경우 5차당대회에서 혁명2세대는 2명뿐이었으나, 6차당대회에서는 김일성을 제외한 9명 전원이 혁명2세대였다. 한편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개화되면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출판물과 김정일의 저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1982년 김정일의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데 이어 1986년에는 김일성의 생일과 같이 이틀 연휴로 바뀌었다.

또한 김정일은 최고통치권자나 할 수 있는 외국의 국가원수

161) 김학준, 「분단50년사」, pp. 326~336.

접견 등을 시작하였으며, 김일성만이 행하던 현지 실무지도를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김정일의 실무지도에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정무원 총리 강성산 등이 수행함으로써 그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하였다. 김일성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북한에 ‘김정일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1990년부터 시작되는 김정일 당권장악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공식승계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까지 당내에서의 지위만을 유지하였던 김정일은 1990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 1992년 원수취임, 1993년 국방위원장 선출 등 당밖에서 하나씩 지위를 획득하며 김일성 이후를 대비하였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주민들의 애도와 이에 대한 자신의 배려를 이유로 공식승계를 지연시키며 소위 ‘유훈통치’를 펼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우상화작업과 김일성의 카리스마 전이작업에 열중하며 공식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아버이 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김일성과의 동일시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소위 ‘광폭정치’와 ‘인덕정치’를 통하여 김일성 사후 카리스마의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심의 표류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¹⁶²⁾

162) 김성철 외, 「김정일 승계체제 공고화 동향」, p. 1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은 거의 30년에 걸쳐 시기별 특징을 갖고 전개되어 왔으며, 김정일 당권장악의 핵심적 특징은 중앙집권적 조직체제의 확립, 핵심세력의 구축, 수령지위획득 작업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통하여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인물장악에도 치중하여 과거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근무시 함께 일하며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인물과 친인척들을 현재 비서국 등 당핵심부서에 포진시킴으로써 자신의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획득을 중시하여 총비서직 승계 못지 않게 수령의 지위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북한에서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김정일 우상화작업, 혁명가계혈통, 김일성과의 동일시작업 등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임박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과 그 특징을 볼 때 김정일의 당내 권력기반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평가되며,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당·국가체제의 전형인 북한에서 당권을 바탕으로 한 권력장악 역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령 사망 후 군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관리하는 일이 김정일 시대 개막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 록> 김정일 약력

- | | |
|-------------|--|
| 1942. 2. 16 | 출생 |
| 1945 | 입국 |
| 1948 | 평양남산학교 인민반에 입학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삼석인민학교,
평양 제4인민학교 5학년에 편입 |
| 1954. 9 | 평양 제1초급중학교 |
| 1957. 9 | 남산고급중학교 |
| 1960. 9 |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입학 |
| 1964. 6 | 조직지도부 지도원, 책임지도원 |
| 1967 | 선전선동부 문학예술과장 |
| 1969 | 선전선동부 부부장 |
| 1973. 4 | 당 문학예술부장 |
| 1973. 9 | 당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 |
| 1974. 2 | 당정치위원 |
| 1980. 10 |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군사위원 |
| 1990. 5 |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
| 1991. 12 | 인민군최고사령관 |
| 1993. 4 | 국방위원회 위원장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고영환. 「북한외교관 고영환이 밝히는 평양25시」. 서울: 고려
원, 1992.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2.
- 김병로. 「김정일정권의 인권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
구원, 1995.
- 김학준. 「북한50년사」. 서울: 동아출판사, 1995.
- 민병천. 「북한공산주의」. 서울: 대왕사, 1983.
- 박규식. 「김정일 평전」. 서울: 양문각, 1992.
- 박갑동. 「박헌영」. 서울: 인간사, 1983.
- 배원달. 「북한권력투쟁론」. 서울: 학문사, 1990.
- 백두연구소.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서울: 백두연구소,
1989.
-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 평양: 사회과학출판
사, 1977.
-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
계연구소, 1989.

-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I, II, III. 서울: 돌베개, 1987.
- 이용필 편. 「북한정치체계」. 서울: 교육과학사, 1985.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_____.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이항구.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 서울: 신태양사, 1995.
- 전현준. 「김정일 리더쉽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정인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 박영사, 1991.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선집」 1,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인민의 지도자」 1,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김일성 저작집」 1~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 2, 3,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김정일 선집」 1, 2.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3.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
하. 서울: 중앙일보사, 1993.

_____.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서울:
중앙일보사, 1994.

탁진 외. 「김정일 지도자」 제1, 2부. 동경: 동방사, 1984.

한태연. 「헌법과 정치체제」. 서울: 법문사, 1987.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4.

小林孝輔·星野安上郎 篇. 尹龍熙·柳在坤 共譯. 「각국의회정치
론」. 서울: 대왕사, 1994.

Lenin, Vladimir. *State and Revolutio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4.

2. 논문

김일성. “북조선 공산당 각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1945.12.17).” 「김일성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63.

_____.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 문제에

- 대하여(1946.9.26).” 「김일성 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북조선로동당 제2차전당대회에서 진술한 당중앙위원회 사업결산 보고(1948.3.28).” 「김일성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1959.9.4).” 「김일성 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1963.3.14~27).” 「김일성 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10.5).” 「김일성 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69.3.3).” 「김일성 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1971.6.24).” 「김일성 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2.9.17).”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 결론(1972.10.23-26).”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1975.3.3).”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_____.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80.10.10).” 「김일성 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태백 편집부 편. 「주체사상연구」. 서울: 태백, 1989.
-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1967.6.15).”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코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4.6.10).”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사회의 김일성 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김정일 주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87.
- _____.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1974.10.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5.6.13).”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할 몇가지 중심적과 업에 대하여(1976.1.1).”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 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 (1976.10.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3.31).” 「친애하는 지도자 김 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

- 으키자(1983.1.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1987.10.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2.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로동신문」. 1994.11.4.
- _____.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로동신문」. 1995.6.21.
- 서대숙. “김일성: 그의 성격과 정치.” 김준엽·스칼라피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7.
- _____. “당·정관계변화.”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신정현. “권력구조의 변화.” 고성준 외 편.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 양승합. “북한의 권력승계정치와 체제 및 정책변화에 관한 연

- 구.”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Ⅲ): 북한체제 및 정책변화 전망 분야』. 서울: 통일원, 1993.
- 이상민. “정치체제와 조선노동당.” 고성준 외.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서울: 대왕사, 1992.
- _____. “북한의 당·국가관료제의 제특성과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권 2호 (1992).
- 장명봉. “공산주의국가의 권력구조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지위: 공산당독재 이론의 체계적 전개.” 『통일정책』, 제3권 3호.
- 전인영. “조선노동당: 북한사회의 지도세력.”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전용석.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 『근로자』, 제10호 (1991).
- “혁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근로자』, 제8호 (1973).
- Meissner, Boris. "Party Supremacy: Some Legal Questions,"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65).

3. 기 타

『로동신문』.

『북한인명사전』. 서울: 서울신문사, 1995.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1, 2, 3, 4. 서울: 국토통일원, 1980.

「조선로동당략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5.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的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중심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 2年: 北韓情勢 動向 및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 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 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研究報告書 96-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7-9288, FAX: 237-9289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0월 일

發行日 1996년 10월 일
